



2014 Annual Report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에서 성장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014년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환율불안 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많은 소임이 주어진 한 해였습니다.

중진공은 세월호 사고,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등의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유동성 자금을 공급하였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 기술개발기업,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으며, 청년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충남지역에 추가 개소하고, 태백 글로벌 리더십연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중국 시안, 베트남 하노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3개 지역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신규 개소하였으며, 은행, 국세청,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책자금 지

원관련 서류 발급과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금년에도 중진공은 중소기업 자생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사업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판로개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 백화점 그리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중국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잠재역량을 갖춘 고성장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해 고성장기업과 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부실 징후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실패를 딛고 재도약하는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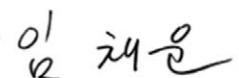
그리고,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Jinx)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시스템 관련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독수리는 30년이 지나면 스스로 발톱을 뽑고 무거워진 털을 뽑아내어 새로운 30년을 산다고 합니다. 중진공도 지난 30여년간 충실히 수행해 온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성장판 역할로 거듭나는 새로운 30년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의 중진공의 행보에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이사장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4 Annual Report

CONTENTS

발간사	02
연혁	06
중진공 비전·전략 체계	08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10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2014년 사업추진방향 및 실적	14
기업진단	17
정책자금	19
기술컨설팅	52
인력양성	58
마케팅·글로벌화	66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84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88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98
부록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104
2014년 발간 간행물	107
2014년 주요 행사	108
조직도	109
운영위원 및 임원	110

HISTORY

| 연 혁 |

- '79.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설치('78.12)
- '82.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지역연수원 개원 : 호남('01.9), 대구·경북('03.11), 부산·경남('04.10)
- '85. 2. **국내 지역·지부 설치**
16개 지역본부, 15개 지부('13.2 현재)
- '89. 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 '93. 7. **신경제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 '98. 7.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 '98. 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BI 설치**
주요 11개국 17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 '02.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기금명칭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06. 9.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07.4)**
- '08. 6. **정책자금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산기반자금 및 국내수출지원업무 인수, 4개 해외사무소 폐쇄

- '09. 1. **기금명칭 변경**
기금명칭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약칭 : 중진기금)」

- '09.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 '11. 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 '12. 1. **청년창업센터 개소**
18개 지역본부에 운영('14.12 현재)

- '12. 12.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

- '13. 12. **“해외유통망진출지원센터” 설치**
미국 뉴저지 1개소

- '14. 7. **본사 지방이전 완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 '14. 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금 설치('14.1)

- '14. 10.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개원**

- '14. 11. **카자흐스탄 글로벌 BI 개소**

| 중진공 비전, 전략체계 |

미션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

비전 (슬로건)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 | | | | |
|--------------|----------------------|---------------------------|-------------------------|
| 전략 목표 | 1 ① 성공창업기업 육성 | 2 ② 진단기반의 성장사다리 구축 | 3 ③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 |
|--------------|----------------------|---------------------------|-------------------------|

전략 과제	1 청년 창업가 육성 강화	1 진단기반 맞춤형 연계 지원 강화	1 부채관리를 통한 중진기금 건전성 제고
	2 성공창업을 위한 연계지원 강화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육성 지원	2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3 중소기업의 재도전 지원 강화	3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경영 효율성 및 핵심역량 강화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경제동향

201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전년 2.9%에서 3.3%로 높아졌으나,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전체적인 내수 회복세는 미약하였다.

민간 소비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위축된 이후 3/4분기 들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심리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8% 증가에 그쳤다. 수출(5,727억달러)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1%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장년층·여성의 활발한 시장참여와 고용정책 효과 등으로 고용증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취업자 수(25,599천명)는 전년대비 53만3,000명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시장참여 확대로 전년보다 높은 3.5%를 기록했다. 고용구조 측면에서 상용직 중심의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소매 등 최근 전통 서비스업 위주로 임시직도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었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며 고용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 농산물 작황개선 등의 여파로 1%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했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					
국내총생산(GDP)	6.3	3.7	2.3	2.9	3.3
국민총소득(GNI)	5.6	1.5	2.7	3.7	3.8
수출동향 (억달러, %)					
수출(FOB) (증감률)	4,663.8 (28.3)	5,552.1 (19.0)	5,478.7 (Δ1.3)	5,596.3 (2.1)	5,726.6 (2.3)
수입(CIF) (증감률)	4,252.1 (31.6)	5,244.1 (23.3)	5,195.8 (Δ0.9)	5,155.8 (Δ0.8)	5,255.1 (1.9)
무역수지	411.7	308.0	282.9	440.5	471.5
고용동향 (천명, %)					
경제활동인구	24,748	25,099	25,501	25,873	26,536
취업자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고용률	58.7	59.1	59.4	59.5	60.2
실업자 (실업률)	920 (3.7)	855 (3.4)	820 (3.2)	807 (3.1)	937 (3.5)
물가동향 (2010=100, %)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100.0 (3.0)	104.0 (4.0)	106.3 (2.2)	107.7 (1.3)	109.1 (1.3)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대비)	100.0 (3.8)	106.7 (6.7)	107.5 (0.7)	105.7 (Δ1.7)	105.2 (0.5)

* 참고자료: 기획재정부(2015년 경제전망), 한국은행(경제활동별 성장률, 물가동향), 무역협회(수출동향), 통계청(고용동향)

중소기업동향

2014년은 엔저 및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생산지수, 평균가동률은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2012년부터 이어진 감소세를 이어가며, 중화학, 경공업 부문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정부의 창업촉진정책 강화 추진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84,697개를 기록하며, 전년에 기록한 2000년 이후 신설법인수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부도업체수도 전년 대비 16.0% 감소한 841개로 2009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 육성시책 등에 힘입어 2014년도 말 기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522조원을 기록했다. 또한 8월과 10월의 기준금리 인하조치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6%로 전년 대비 0.32%p 하락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완화 등으로 인한 신규연체 감소로 중소기업 대출연체율도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0.84%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관련 주요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조업 생산동향 (2010=100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100.0	106.0	107.5	107.8	107.5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100.0	104.4	105.4	107.1	106.5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중소제조업(%)		16.9	16.8	16.6	16.1	15.2
- 중화학		19.2	19.0	18.1	17.8	16.6
- 경공업		13.1	13.4	14.1	13.2	12.9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80.9	79.9	77.8	76.2	76.0p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2.1	72.2	71.1	71.8	71.5
제조업 가동률지수 (2005=100 기준)		101.7	100.5	97.5	94.8	94.0p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A) (개)		60,312	65,110	74,162	75,578	84,697
부도법인 수(B) (개)		1,142	967	890	705	614
신설/부도배율(A/B) (%)		52.8	67.3	83.3	107.2	137.9
부도업체 수 (개)		1,570	1,359	1,228	1,001	841
어음부도율 (전자결제조정후,%)		0.03	0.02	0.02	0.02	0.02
금융동향						
대출잔액 (원화대출, 연말, 조원)	중소기업	429.7	441.4	446.8	489.0	522.4
	대기업	87.3	115.1	142.2	166.1	183.5
대출금리(신규액기준) (연 %)	중소기업	5.68	6.00	5.66	4.92	4.60
	대기업	5.25	5.50	5.18	4.46	4.10
대출연체율 (12월말기준, %)	중소기업	1.30	1.34	1.02	0.88	0.84
	대기업	0.35	0.25	0.83	0.81	0.57

* 통계청(생산동향,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창업 및 부도동향, 금융감독원(금융동향))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4 Annual Report

01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2014년 사업추진방향 및 실적

기업진단(사업기반)

정책자금

기술컨설팅

인력양성

마케팅·글로벌화

2014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2014년에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재창업자금 및 재기지원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글로벌 BI,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및 수출원스톱 서비스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중진공이 2014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진공 사업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해 총 14,254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지원 후에는 사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의 효과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 총 3,810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사업은 지난해(2013년)의 양적확대(5조원) 위주에서 정책목적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집행에 중점을 두고 전년대비 15.6% 감소한 4조2,200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전략산업에 2.7조원(84.0%)과 시설자금에 1.4조원(44.1%)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진단 기반으로 정책자금을 1.4조원 지원하여 정책자금 지원효과성 제고 및 중소기업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년(1,300억원) 대비 15.4% 증가한 1,500억원의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사업 실패 경험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를 위하여 전년(406억원) 대비 26.4% 증가한 513억원의 재창업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최대 20인까지 추가 고용기업에 대해 1인당 0.1%p 금리우

대(최대 2%까지)를 하는 등의 우대 지원을 통해 11,78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세월호 사고, 팬택 법 정관리,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등의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5,123개사에 2,681억원의 긴급유동성 자금을 공급하여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고액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424억원)을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구축에 일조하였다. 특히,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진공 직접 취급 자금의 73.7%인 2.4조원을 직접대출로, 직접대출의 78.6%인 1.9조원을 신용대출로 집행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중진공은 2014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533개 기업 대상으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과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및 특화형 융합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전거 해양레저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7개 기술개발과제를 신규 지원하였다.

인력양성사업 중 연수사업은 중소기업임직원 63,181명을 대상으로 기술, 품질, 경영, IT, 디지털, 기업 혁신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14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255명이 가입하여 가입목표 1,600명을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완화를 위해 일본, 미국, 인도 등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외국 전문 기술인력 110명 도입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하기 좋은 으뜸 중소기업을 발굴,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스마일스토리지(知)' 사업을 수행하여,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509개사를 선정 후 1,203명의 초대졸자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였다.

마케팅·글로벌화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 사업에 1,986개 업체가 참여하여 58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2014년까지 중소기업 40,405개사의 163,226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 327개를 발굴하고, HIT500 PLAZA와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지원을 통해 연간 2,528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은 착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장점을 갖춘 11개 품목 28개의 스마트 제품을 발굴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기여했다. 그리고 해외 대형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

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소비자 직접판매 13억원, 연계판매 59억원, 프로모션 37억원 등 2014년 한해 109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해외협력기반 조성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산업협력사절단을 10회 파견 및 초청하고, 산업기술협력관 20회 교환, 세미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10개사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에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 판로·수출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01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기업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용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진단을 통한 문제점(기업애로) 분석과 처방전(해법) 제시, 연계지원으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진단 추진절차

절 차	업 무 내 용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 징구) * 기업진단 신청서에 애로분야 표기 및 상담
↓	
진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방문/실태조사 진단은 3가지 방식(KPI기반, 진단자기반, 성과관리기반)으로 수행
↓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 및 프레젠테이션) 사업연계추천서발급(정책자금 필요기업은 기업등급 동시산출)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 소요금액 검토 후 대출 자금이외 사업 : 사업별 연계지원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연계지원(R&D, 보증, 기타)
↓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지원 실적집계 및 관리(4대 핵심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에 연계지원 결과를 피드백하여 계획수립에 반영

2014년도에는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해 기업진단을 통해 총 14,254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정책자금 용자업체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진단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자금의 효과성 달성은 물론 기금의 부실률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정책사업을 추천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3,810건의 정책사업을 연계지원하였다.

진단기업에 대한 문제해결형 추천사업의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14년 맞춤형 실적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진단자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단기반 사업연계율이 '13년 59.6%에서 '14년 68.2%로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PCSI 고객만족도가 '13년 87.7점에서 '14년 89.7점으로 상승하였다.

중진공 사업연계 분야별 지원실적

구분	중진공 사업연계					
	자금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기타	총계
진단기반 연계지원	2,899건 (14,254억원)	287건	3건	252건	369건	3,810건

담보력 부재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3년 기술가치평가방법을 신규 도입, 시범운영한 이래 '14년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특허담보대출을 5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확대·운영하였고, 진단기반 기술가치평가방법을 추가 연구개발(로열티공제법)하여 '15년 시범운영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추진 기술평가기관간 기술가치정보 교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술금융 활성화의 정부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

진단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4년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심층진단 모듈을 개발하였고 다수의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의 종합적인 기술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다중특허평가 모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3년부터 시행한 금융권·진단기관간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4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단기관 자체 업체 발굴 및 단독지원이 가능한 경영개선진단을 신규 도입하였고, 부실징후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이 있는 경영애로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14년 중진공의 핵심역량인 기업진단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33개사에 대한 1:1 멘토링 활동으로 기업진단과 맞춤형 정책사업을 연계지원하였으며, 본사의 진주 이전과 함께 지역친화 사회공헌활동으로 경남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One Point Lesson을 실시,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 제시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내·외부적 변화에 맞춘 기업진단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에 사업성과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수진기업의 고객만족도는 진단자의 전문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기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진단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기업의 애로해결 및 자생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01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정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자금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정책 목적성에 맞는 특화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창업기업자금은 예산 13,400억원(창업기업지원 11,400억원, 청년전용창업 1,500억원, 재창업 500억원)을 9,215개 업체에 집행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창업기업	1,140,000	6,710	2,795,114	4,441	1,328,059	4,362	1,138,739
재창업	50,000	530	135,602	385	57,635	376	51,261
청년전용창업	150,000	5,609	260,600	4,487	150,900	4,477	150,000
계	1,340,000	12,849	3,191,316	9,313	1,536,594	9,215	1,340,000

가. 창업기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2014년까지 38,865개사에 11조 1,198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4년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사업은 성장유망 창업 및 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11,400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99.9%를 집행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140,000	6,710	2,795,114	4,441	1,328,059	4,362	1,138,739

창업자금 지원업체의 업력을 살펴보면, 설립 1년 미만 업체에 3,323억원(29.2%), 설립 1년 이상~3년 미만 업체에 3,580억원(31.4%), 설립 3년 이상~5년 미만 업체에 2,851억원(25.0%), 설립 5년 이상~7년 미만 업체에 1,634억원(14.4%)이 지원되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지원이라는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1,773	868,021	1,043	401,343	1,033	332,281
1년이상~3년미만	2,396	881,894	1,590	393,595	1,573	357,956
3년이상~5년미만	1,572	620,356	1,131	315,465	1,114	285,058
5년이상~7년미만	948	416,588	677	217,656	642	163,444
7년이상	21	8,255	0	0	0	0
계	6,710	2,795,114	4,441	1,328,059	4,362	1,138,739

매출액 규모는 창업 초기기업을 집중 지원함에 따라 매출액 5억원 미만 기업이 41.0%(4,667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2.0%(10,476억원)를 집행하였다.

2014년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5억원미만	3,147	1,301,375	1,774	551,268	1,741	466,732	41.0
5 ~ 10억원미만	882	272,235	586	125,998	576	110,757	9.7
10 ~ 50억원미만	2,023	813,138	1,559	410,173	1,538	361,917	31.8
50 ~ 100억원미만	426	229,767	332	127,239	323	108,221	9.5
100 ~ 300억원미만	214	161,039	176	99,406	172	83,574	7.3
300억원이상	18	17,560	14	13,975	12	7,538	0.7
계	6,710	2,795,114	4,441	1,328,059	4,362	1,138,739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1.1%(2,400억원), 경남 10.4%(1,179억원), 경북 9.2%(1,046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66.2%(7,534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1,046	308,759	653	112,909	644	103,717	9.1
부산	399	167,964	259	88,049	257	78,677	6.9
대구	316	108,801	214	52,114	217	53,670	4.7
인천	369	123,872	226	46,608	220	41,629	3.7
광주	249	91,860	140	40,286	141	38,895	3.4
대전	265	98,394	158	34,814	158	27,660	2.4
울산	197	101,098	129	50,206	123	38,699	3.4
경기	1,678	663,719	1,110	297,486	1,065	240,024	21.1
강원	113	50,777	98	36,929	96	24,670	2.2
충북	211	156,876	129	96,127	123	69,790	6.1
충남	239	109,202	178	65,598	188	64,123	5.6
전북	247	154,539	153	74,201	145	61,620	5.4
전남	179	101,989	152	64,901	152	56,685	5.0
경북	505	232,485	363	110,813	367	104,563	9.2
경남	622	303,110	421	141,315	403	117,947	10.4
제주	66	18,946	50	14,303	55	15,250	1.3
세종	9	2,723	8	1,400	8	1,120	0.1
계	6,710	2,795,114	4,441	1,328,059	4,362	1,138,739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중진공 직접취급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67.8%(7,723억원)이며, 이 중 신용 대출이 67.7%(5,227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366,413	522,724	93,626	155,976	772,326	1,138,739

3) 제도개선사항

창업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등을 고려하여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창업지원법에 맞춰 기존 5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우수 인력의 창업촉진 및 실패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나. 재창업자금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4년도에는 376개 업체에 512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4년도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이 전년(263개업체, 406억원)대비 26.1% 향상되었으며, 실패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0,000	530	135,602	385	57,635	376	51,261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자금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95.7%(490억원)이며, 이 중 신용 대출이 87.7%(430억원)로 집행되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재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2,180	43,052	2,585	3,444	49,081	51,261

3) 제도개선사항

재창업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자금 신용대출 기간을 연장(기존: 5년 → 개선: 8년) 하였으며,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결정 등급을 업력별로 차등화 및 상향조정 하였다.

다. 청년전용창업자금

1)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9%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과 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4년도에는 4,477개 업체에 1,500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4년도에는 융자상환금조정형으로 1,309개사 1,000억원을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금융매칭형으로는 3,168개사 500억원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기반구축에 기여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융자상환금조정형	2,441	210,600	1,319	100,900	1,309	100,000
민간금융매칭형	3,168	50,000	3,168	50,000	3,168	50,000
전체	5,609	260,600	4,487	150,900	4,477	150,000

* 민간금융매칭형 실적은 중진기금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이후 후속 연계지원으로 현업전문가의 사업화 애로해결을 위한 석세스 코칭을 404개사에 대해 595건을 실시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진출 100개사를 선정하여 단기간(4개월) 수출지원을 실시, 9개사 40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 연계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창업교육	멘토링		수출지원		
		멘토링	석세스코칭	상품페이지	디렉토리북	해외전시회
지원결과	981개사	5,219건	595건	97개사	97개사	50개사

* 민간금융매칭형 실적은 중진기금 기준

3) 제도개선사항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청년창업아카데미에 창업실전과정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융자대상업종을 전 업종(융자제한 업종 제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는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지원을 위해 시설자금 장기 대출인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자금을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였다.

2014년 신성장기반자금의 예산은 8,650억원으로 예산 대비 112.4%인 9,720억원을 지원결정하고 8,650억원을 집행하였다.

2014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성장기반	732,555	1,884	1,338,021	1,451	826,902	1,477	732,555
협동화	90,000	165	175,406	144	94,072	152	90,000
기술사업성우수	42,445	29	59,655	26	51,005	25	42,445
계	865,000	2,078	1,573,082	1,621	971,979	1,654	865,000

가. 신성장기반

1)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4년도에는 1,477개사에 7,326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32,555	1,884	1,338,021	1,451	826,902	1,477	732,555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5.4%,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24.6%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39.7%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14.5%, 잡화음식료 13.2%, 전기전자 8.0% 순이었다.

2014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537	496,950	415	338,933	429	290,564	39.7
전기전자	81	100,528	63	67,146	64	58,792	8.0
섬유화학	206	200,532	153	118,952	157	105,927	14.5
잡화음식료	241	194,440	184	113,300	190	96,961	13.2
기타	819	345,571	636	188,571	637	180,311	24.6
계	1,884	1,338,021	1,451	826,902	1,477	732,555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0.6%(1,505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35.8%(2,619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이 64.2%(4,707억원)으로 나타나,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중
서울	340	139,968	266	79,432	264	67,905	9.3
인천	66	53,508	53	36,621	65	43,399	5.9
경기	386	299,652	274	171,550	276	150,541	20.6
부산	109	91,375	90	65,460	90	51,762	7.1
대구	76	58,263	67	38,290	68	35,960	4.9
광주	68	41,468	54	30,774	53	30,050	4.1
대전	85	63,557	63	36,532	63	32,086	4.4
울산	92	76,682	72	48,164	70	35,050	4.8
강원	22	19,574	21	17,837	18	14,563	2.0
충북	109	99,820	76	47,870	80	48,448	6.6
충남	68	53,569	52	34,732	53	30,196	4.1
전북	85	65,288	64	35,084	59	27,780	3.8
전남	48	31,460	44	25,435	45	20,530	2.8
경북	161	104,936	127	74,822	132	62,521	8.5
경남	153	132,676	115	79,824	130	78,165	10.7
제주	16	6,225	13	4,475	11	3,599	0.5
합계	1,884	1,338,021	1,451	826,902	1,477	732,555	100.0

중업원 규모별로는 중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신성장기반자금 예산의 75.7%(5,547억원)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2014년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이하	250	16.9	66,020	9.0
6 ~ 20인이하	573	38.9	218,043	29.8
21 ~ 50인이하	424	28.7	270,657	36.9
51 ~ 100인이하	160	10.8	118,757	16.2
101 ~ 300인이하	68	4.6	57,778	7.9
300인 초과	2	0.1	1,300	0.2
계	1,477	100.0	732,555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신성장기반자금 총 7,326억원의 지원액 중 직접대출이 48.5%(3,554억원)이

며, 이 중 신용대출이 70.4%(2,501억원), 보증서 대출이 13.0%(461억원), 부동산 대출이 16.6%(592억원)로 나타났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377,159	250,144	46,095	59,157	355,396	732,555

3) 제도개선사항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 향상의 일환으로 시설투자 중심 지원 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당해연도 시설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업체당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5억원→10억원)하였으며, 신성장기 반자금에 대한 매출액 지원제한도를 상향 조정(500억원 이상→1,000억원 이상)하여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였다.

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1) 사업개요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14년도 신설되었으며, 장기 저리로 시설자금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4년도에는 25개사에 42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42,445	29	59,655	26	51,005	25	42,445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92.5%,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7.5%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53.5%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21.9%, 전기전자 10.1%, 잡화음식료 7.0%순이었다.

2014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13	33,655	12	28,820	11	22,713	53.5
전기전자	2	4,500	2	4,300	2	4,300	10.1
섬유화학	9	11,300	8	9,900	8	9,290	21.9
잡화음식료	2	4,700	2	4,497	2	2,954	7.0
기타	3	5,500	2	3,488	2	3,188	7.5
계	29	59,655	26	51,005	25	42,445	100.0

지역별로는 경기 16.5%(70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118억원(27.8%), 수도권 이외 지역이 72.2%(307억원)으로 나타나,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3	4,300	2	2,088	2	2,088	4.9
인천	1	2,700	1	2,700	1	2,700	6.4
경기	5	8,800	5	8,800	5	7,000	16.5
부산	2	4,760	2	3,600	2	3,413	8.0
대구	3	8,680	3	8,580	2	2,680	6.3
광주	1	1,500	1	1,500	1	1,500	3.5
대전	1	1,305	1	1,040	1	1,040	2.5
울산	1	1,100	1	1,100	1	1,100	2.6
강원	1	2,700	1	2,497	1	2,454	5.8
충북	2	4,000	2	4,000	2	4,000	9.4
충남	1	2,000	1	2,000	1	1,400	3.3
전북	2	1,200	1	800	1	800	1.9
전남	-	-	-	-	-	-	-
경북	2	5,500	2	5,300	2	5,300	12.5
경남	4	11,110	3	7,000	3	6,970	16.4
제주	-	-	-	-	-	-	-
합계	29	59,655	26	51,005	25	42,445	100.0

중업원 규모별로는 중업원 수 51~ 100인 이하의 기업에 51.1%(217억원)을 지원하여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며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발판 마련에 기여하였다.

2014년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1	4.0	390	0.9
6 ~ 20인이하	4	16.0	6,213	14.6
21 ~ 50인이하	5	20.0	6,000	14.1
51 ~ 100인이하	10	40.0	21,658	51.1
101 ~ 300인이하	5	20.0	8,184	19.3
300인 초과	-	-	-	-
계	25	100.0	42,445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예산 총 425억원 전액 직접대출로 지원되었으며, 이 중 보증서 대출이 27.7%(118억원), 부동산 대출이 72.3%(307억원)로 나타났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	11,770	30,675	42,445	42,445

3) 제도개선사항

신성장기반자금 내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하여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출기간을 장기(15년 이내)로 운영하여 시설투자 기업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였다.

다. 협동화사업

1) 사업개요

협동화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공장과 부대시설, 생산·실험연구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며, 상호 경영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4년도에는 152개사에 9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0,000	165	175,406	144	94,072	152	90,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4.6%,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25.4%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46.9%로 가장 높고, 잡화음식료 10.8%, 섬유화학 9.3%, 전기전자 7.8% 순이었다.

2014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82	92,188	80	46,692	82	42,171	46.9
전기전자	12	7,855	12	6,282	14	6,985	7.8
섬유화학	16	14,298	8	5,871	10	8,328	9.3
잡화음식료	17	19,518	17	9,325	18	9,682	10.8
기타	38	41,547	27	25,902	28	22,834	25.4
계	165	175,406	144	94,072	152	90,000	100.0

지역별로는 서울 23.2%(209억원), 경기 18.4%(165억원), 울산 10.7%(96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57.3%(516억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15	28,129	15	19,044	14	20,913	23.2
인천	18	3,160	4	1,133	3	953	1.1
경기	28	24,564	31	17,326	32	16,534	18.4
부산	10	6,424	7	4,159	9	5,660	6.3
대구	6	3,250	6	3,201	6	3,201	3.6
광주	5	6,220	3	3,860	1	1,610	1.8
대전	7	8,360	10	8,000	10	8,000	8.9
울산	13	23,020	14	15,900	15	9,640	10.7
강원	14	4,845	8	1,316	10	2,100	2.3
충북	18	41,977	11	5,462	9	4,400	4.9
충남	9	10,467	11	6,531	18	8,619	9.6
전북	1	490	1	490	2	590	0.7
전남	-	-	-	-	-	-	0.0
경북	6	2,150	5	1,900	5	1,900	2.1
경남	15	12,350	18	5,750	18	5,880	6.5
제주	-	-	-	-	-	-	0.0
계	165	175,406	144	94,072	152	90,000	100.0

중업원 규모별로는 중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협동화자금 예산의 93.9%(836억원)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2014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이하	34	22.4	19,174	21.3
6 ~ 20인이하	81	53.3	47,501	52.8
21 ~ 50인이하	28	18.4	16,925	18.8
51 ~ 100인이하	7	4.6	5,500	6.1
101 ~ 300인이하	2	1.3	900	1.0
300인 초과	-	-	-	0.0
계	152	100.0	90,000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협동화자금 총 90,000백만원의 지원액 중 직접대출이 45.4%(409억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35.4%(145억원), 보증서 대출이 26.9%(110억원), 부동산 대출이 37.7%(154억원)로 나타났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49,114	14,475	11,003	15,408	40,886	90,000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 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4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1,300억원을(수출금융지원사업 997억원, 재해복구지원사업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303억원) 전액 집행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수출금융지원사업	99,700	300	117,095	223	57,395	323	124,244
재해복구지원사업	30,300	82	16,987	82	11,663	82	11,663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155	55,105	97	18,787	96	18,637
계	130,000	537	189,187	402	87,845	501	154,544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금액이 많음

가. 수출금융지원사업

1) 사업개요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323개사에 1,242억원을 회전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애로 및 무역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9,700	300	117,095	223	57,395	323	124,244

주) 회전대출을 포함한 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7.2%,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2.8%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37.4%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23.7%, 잡화음식료 16.7%, 전기전자 9.4%순이었다.

2014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100	43,760	76	20,760	122	46,452	37.4
전기전자	24	11,280	15	4,930	24	11,710	9.4
섬유화학	68	24,580	54	13,481	73	29,391	23.7
잡화음식료	50	17,740	38	10,299	49	20,818	16.7
기타	58	19,735	40	7,925	55	15,873	12.8
계	300	117,095	223	57,395	323	124,244	100

지역별로는 경기 223억원(17.9%), 서울 105억원(8.4%), 인천 54억원(4.4%) 등 수도권에서 382억원 (30.7%)을 지원하였으며, 경남지역에 9.4%인 116억원을 집행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860억원(69.3%)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30	10,930	22	4,770	31	10,480	8.4
인천	16	4,615	14	2,475	20	5,405	4.4
경기	73	31,700	46	11,221	65	22,280	17.9
부산	22	7,090	18	4,510	30	9,823	7.9
대구	17	5,400	13	3,270	18	6,800	5.5
광주	7	3,300	6	2,800	13	6,700	5.4
대전	7	2,400	7	1,550	10	4,120	3.3
울산	5	1,200	4	1,100	9	4,855	3.9
강원	7	1,750	7	1,380	8	2,660	2.2
충북	15	5,650	12	3,320	21	9,210	7.4
충남	14	6,530	9	3,810	11	6,360	5.1
전북	10	5,700	5	3,200	8	8,200	6.6
전남	11	5,600	7	1,430	11	4,130	3.3
경북	29	11,670	26	5,849	31	10,661	8.6
경남	33	12,400	25	6,160	35	11,670	9.4
제주	4	1,160	2	550	2	890	0.7
계	300	117,095	223	57,395	323	124,244	100.0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금액이 많음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수의 82.0%(265개), 총 지원금액의 74.1%(92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32	8,278	9.9	6.7
5 ~ 20인 미만	123	37,418	38.1	30.1
20 ~ 50인 미만	110	46,384	34.0	37.3
50 ~ 100인 미만	42	25,050	13.0	20.2
100 ~ 300인 미만	16	7,114	5.0	5.7
계	323	124,244	100	100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대출금액 1,242억원을 100% 신용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신용	기타	계
담보별	124,244	0	124,244

3) 제도개선사항

2011년 도입한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를 정착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편중 방지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였다.

나. 재해복구지원사업

1) 사업개요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폭설, 폭우 등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 82개사에 116억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재해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폭설	27	4,059	27	3,434
폭우	54	12,728	54	8,029
기타	1	200	1	200
계	82	16,987	82	11,663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전체지원액을 신용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여,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소요비용의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11,663	-	-	11,663	11,663

3) 제도개선사항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과 공동예산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자금이 적시에 적절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다.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1)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대형사고 피해기업, 환율변동 피해기업, (주)팬택 협력사 등 일시적 애로에 처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기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4년 기업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대형사고 피해	29	9,945	27	5,882
매출감소 기업	65	21,200	37	5,120
매출채권 회수지원	18	6,670	6	1,150
팬택 협력사	11	5,930	9	2,960
기타	32	11,360	17	3,525
계	155	55,105	96	18,637

전체지원액을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대출의 95.7%를 신용으로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급격한 자금경색과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상황 속에서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17,837	-	800	18,637	18,637

3) 제도개선사항

대내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및 반영하여 (주)팬택 협력사 지원 등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을 신속히 추가 운영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소상공인의 창업안정 및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SSM의 급증으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슈퍼마켓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나들가게 사업’의 일환으로 ‘나들가게자금’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소상공인지원자금 내에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설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가. 소공인특화자금

1) 사업개요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기반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는 소상공인지원자금과 달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집행하며 2014년도에는 3,256개 업체에 2,904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4년도에는 3,256개사 2,90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우수한 소공인의 사업화 지원을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90,408	4,523	510,903	3,273	296,521	3,256	290,408

소공인 특화자금은 100% 직접대출을 하였으며, 신용으로 95.1%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와 담보력이 취약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276,177	5,837	8,394	290,408	290,408

나. 소상공인지금

1) 사업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국민은행 등 20개)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집행된다.

* 소상공인 여부(사업자등록증,상시근로자수), 사치·향락업종 등 정부지원 제한업종 점검 후 발급

2) 사업추진현황

2014년 소상공인지금은 26,569개사에 7,401억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 창업·경영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분	예산(A)	대여		집행률(B/A)
		업체수	금액(B)	
2001년	3,700	14,313	3,700	100.0
2002년	3,500	10,310	3,185	91.0
2003년	3,500	13,914	3,496	99.9
2004년	3,500	14,756	3,456	98.7
2005년	5,100	19,605	4,642	91.0
2006년	4,552	16,300	4,395	96.6
2007년	3,457	12,449	3,442	99.6
2008년	2,890	8,531	2,672	92.5
2009년	10,967	46,457	11,184	102.0

2010년	3,000	10,582	3,000	100.0
2011년	4,450	15,881	4,450	100.0
2012년	4,400	14,197	4,400	100.0
2013년	7,500	22,105	6,345	84.6
2014년	6,246	26,569	7,401	118.5
계	66,762	245,969	65,768	98.5

* 13년 이월예산 1,155억원 14년 집행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4년도에는 1,504개사에 3,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50,000	1,935	694,871	1,512	363,421	1,504	350,000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616억원(46.2%), 섬유·화학 617억원(17.6%), 전기·전자 496억원(14.2%)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8.0%인 2,729억원이 지원되었다.

2014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 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806	297,551	640	168,757	636	161,604	46.2
섬유화학	293	116,181	238	65,425	233	61,668	17.6
전기전자	327	110,855	247	51,342	244	49,659	14.2
잡화음식료	204	75,657	158	38,075	159	37,012	10.6
기타	305	94,627	229	39,822	232	40,057	11.4
계	1,935	694,871	1,512	363,421	1,504	350,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773억원(22.1%), 서울에 394억원(11.3%)이 지원되는 등 수도권에 총 1,289억원 (36.8%), 수도권의 지역에 2,211억원(63.2%)이 지원되었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271	91,434	203	38,798	206	39,400	11.3
인천	85	25,730	64	12,810	64	12,200	3.5
경기	452	170,400	339	80,440	335	77,300	22.1
부산	101	41,175	80	23,703	78	21,833	6.2
대구	96	32,989	73	22,151	71	18,620	5.3
광주	58	15,460	47	12,000	45	11,100	3.2
대전	80	23,598	73	12,370	72	12,605	3.6
울산	54	19,376	44	12,000	43	11,900	3.4
강원	39	15,446	27	7,502	27	6,800	2.0
충북	105	45,204	78	22,090	77	21,160	6.0
충남	118	42,204	98	22,279	98	21,795	6.2
전북	101	35,110	79	19,773	78	19,389	5.5
전남	72	25,650	57	14,220	58	14,300	4.1
경북	139	47,242	121	29,333	120	28,480	8.1
경남	142	59,173	111	31,342	114	30,658	8.8
제주	18	3,580	14	1,860	14	1,710	0.5
세종	4	1,100	4	750	4	750	0.2
계	1,935	694,871	1,512	363,421	1,504	350,000	100

기술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1,463억원(41.8%), Inno-biz 업체 보유기술 751억원(21.5%),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술 659억원(18.8%)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267	65,863	17.8	18.8
특허/실용신안/저작권	688	146,339	45.7	41.8
Inno-biz	278	75,160	18.5	21.5
기업부설연구소	259	60,428	17.2	17.3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7	1,560	0.5	0.4
기술이전	5	650	0.3	0.2
계	1,504	350,000	100.0	100.0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기업에 2,775억원(79.3%)을 지원하여 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인 미만 소기업에 지원금액이 1,405억원(40.2%)에 이르고 있다.

2014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 미만	157	18,525	10.4	5.3
6 ~ 20인 미만	670	121,987	44.5	34.9
21 ~ 50인 미만	481	136,996	32.0	39.1
51 ~ 100인 미만	153	55,100	10.2	15.7
101 ~ 300인 미만	43	17,392	2.9	5.0
300인 이상	-	-	-	-
계	1,504	350,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3,195억원, 91.3%)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4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신용	보증서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계
담보별	319,528	9,810	16,247	4,415	350,000

3) 제도개선사항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애로 해소 및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비전략업종 영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지식재산권(IP)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금융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3년 하반기 시범도입한 특허담보대출은 2013년 50억원에서 2014년에는 16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자금지원(100% 신용대출) 방식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 정책자금 내 지원방식의 하나로 시범운영 후, 2012년 별도 정책자금으로 편성하여 2014년에 615개사에 연 예산 1,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통과해야하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60.1%를 5년 미만 기업에 집행하였다.

2014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이익공유형 대출	115,000	774	228,394	582	117,597	566	114,059
성장공유형 대출	35,000	93	76,811	50	37,241	49	35,941
계	150,000	867	305,205	632	154,838	615	150,000

가. 이익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 있는 초기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연동이자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4년도에는 566개사에 1,14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일조하였다.

이익공유형 지원업체의 업력을 보면, 업력 5년 미만이 64.6%(3년 미만 56.4%)로 창업초기기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였다.

2014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142	40,680	101	20,012	96	18,468	16.2
1년~3년미만	306	84,076	246	46,298	244	45,806	40.2
3년~5년미만	70	20,768	54	9,602	53	9,440	8.3
5년~7년미만	50	16,135	36	7,270	35	7,120	6.2
7년이상	206	66,735	145	34,415	138	33,225	29.1
계	774	228,394	582	117,597	566	114,059	1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4.1%,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25.9%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잡화음식료, 섬유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49	68,575	187	37,753	181	36,519	32.0
전기전자	62	19,264	40	7,750	40	7,650	6.7
섬유화학	115	37,847	79	17,150	76	16,600	14.6
잡화음식료	129	40,419	110	24,860	107	23,686	20.8
기타	219	62,289	166	30,084	162	29,604	25.9
계	774	228,394	582	117,597	566	114,059	1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8.1%, 경남에 11.3%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70.6%(80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60	22,170	44	8,850	45	8,950	7.8
인천	37	9,235	25	4,000	25	4,000	3.5
경기	148	44,874	103	21,140	101	20,610	18.1
부산	72	19,725	47	9,654	47	9,560	8.4
대구	34	9,232	27	5,782	25	5,400	4.7
광주	29	8,350	22	5,000	22	5,000	4.4
대전	17	5,300	12	1,840	12	1,840	1.6
울산	24	7,700	17	4,050	17	4,050	3.6
강원	40	9,280	31	5,580	29	5,300	4.6
충북	42	11,495	34	6,780	32	6,400	5.6
충남	21	6,290	23	4,450	23	4,450	3.9
전북	41	12,220	30	6,722	29	6,680	5.9
전남	37	12,680	30	5,990	27	5,660	5.0
경북	83	24,561	60	12,390	57	11,210	9.8
경남	76	21,812	65	13,289	63	12,869	11.3
제주	13	3,470	12	2,080	12	2,080	1.8
계	774	228,394	582	117,597	566	114,059	100

나. 성장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4년도에는 49개사에 359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6.3%,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33.7%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전자, 잡화음식료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4	21,000	11	9,741	10	8,741	24.3
전기전자	12	12,800	6	5,400	5	4,900	13.6
섬유화학	10	8,500	8	6,800	7	6,300	17.5
잡화음식료	9	4,942	6	2,700	8	3,900	10.9
기타	38	29,569	19	12,600	19	12,100	33.7
계	93	76,811	50	37,241	49	35,941	100

지역별로는 서울에 32.8%, 경기도에 23.3%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3.8%(15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한 결과이다.

2014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구성비
서울	35	26,369	21	12,800	19	11,800	32.8
인천	2	2,000	1	1,000	-	-	-
경기	21	21,050	9	8,190	10	8,390	23.3
부산	3	3,000	-	-	-	-	-
대구	2	1,300	2	1,300	2	1,300	3.6
광주	2	1,100	-	-	-	-	-
대전	-	-	1	500	1	500	1.4
울산	2	1,200	1	1,000	1	1,000	2.8
강원	2	2,000	2	1,800	2	1,800	5.0
충북	2	3,190	2	2,000	2	2,000	5.6
충남	3	3,000	2	1,500	2	1,500	4.2
전북	5	3,700	2	2,000	2	2,000	5.6
전남	2	1,500	3	2,000	3	2,000	5.6
경북	3	2,400	2	1,400	3	1,900	5.3
경남	9	5,002	2	1,751	2	1,751	4.9
제주	-	-	-	-	-	-	-
계	93	76,811	50	37,241	49	35,941	100

3) 제도개선사항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컨텐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하여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을 신규지원 수단으로 시범도입하여 9개 업체에 50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전환지원자금

가. 사업전환지원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06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4년까지 총 1,63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2,196개사에 11,739억원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560개사에 74.1억원의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4년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용자예산 대비 129.8%인 2,072억원

을 지원결정하여, 317개사에 1,597억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예산	신청액	지원결정액	대여업체수	대여액
1,597	2,873	2,072	317	1,597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200개사 중 90.5%인 181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9.5%인 19개사이다.

2012년에 폐지된 품목추가 유형에 대한 신규승인은 없으며 기 승인업체에 대한 사업전환 실시기간(승인후 3년)동안의 용자연계로 2014년도에 11억원이 대출되었다.

2014년 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

구분	신규승인		자금지원			
	업체수	비중	지원결정		대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업종전환	181	90.5	1,847	89.2	1,492	93.4
업종추가	19	9.5	214	10.3	94	5.9
품목추가	-	-	11	0.5	11	0.7
계	200	100.0	2,072	100.0	1,597	100.0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추진을 위해 52개사에 6.8억원의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유휴자산(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을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신문보도 등 다각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나. 무역조정지원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

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용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무역조정지원센터는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4년까지 65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219억원의 용자를 지원하였고, 30개 FTA피해기업을 대상으로 6.9억원의 경영·기술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무역피해 사실입증서 등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증진공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증진공은 2013년부터 모든 신청기업에게 신청 상담, 신청서 작성지원, FTA피해 입증까지 쉼단계에 걸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FTA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인정된 업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등 FTA피해기업 발굴에 노력한 결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지원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지원 실적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무역조정 기업 지정	2	3	2	0	8	24	26	65
용자지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21,854

그리고, 신문·방송·옥외광고와 리플렛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이 무역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무역조정지원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01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기술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진공은 2014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과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및 특화형 융합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중진공이 30년간 지도사업을 통해 축적한 컨설팅사업 수행능력을 기반으로 지원기업 선정부터 점검,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진공 책임 하에 수행하여 2014년에 533개 기업을 선정하여 68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저성장 기조에 대응 컨설팅 테마를 “기업가치 향상”으로 전환하여 컨설팅 품질 및 수진기업 만족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해외전문가의 고유기술 지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첨단·핵심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술간 융합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2014년 컨설팅 지원 성과〉

- 제조원가율 : 74.97% → 70.66% (5.75% 개선)
- 공정불량률 : 5.16% → 2.61% (49.41% 개선)
- 생산납기준수율 : 91.16% → 96.75% (6.13% 개선)
- 인당생산성 : 202.14백만원 → 232.58백만원 (15.06% 증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

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며 과제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시, 기술료를 정부보조금의 10% 이내에서 납부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개발 성공에 기여 하고 있다.

'14년도 정부보조금 규모 및 지원 내용

'14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백만원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신규과제 접수 결과 총 24개 과제(자전거 분야 12개 과제, 해양레저장비 분야에 12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7개 과제(자전거 5개, 해양레저장비 2개)를 최종 선정하여 신규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선정 된 과제 중 연차평가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4개 과제(자전거 3개, 해양 1개)를 계속과제로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3건, 특허출원 3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13년 4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13년에 12억원 예산으로 425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14년 6억원 예산으로 총 241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241개 지원기업 중 34개사에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하여 그중 22개 기업에 회생컨설팅을 신청했으며, 14개사에는 사업정리 안내, 나머지 193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사업전환,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13년 57개사, ‘14년 65개사 등 총 122개 기업을 지원결정 했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14년 중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64개사 중 40개사의 경우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62.5%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가능한 지표인 최근 5년간 법원의 회생인가율 통계수치(34%)를 28.5%p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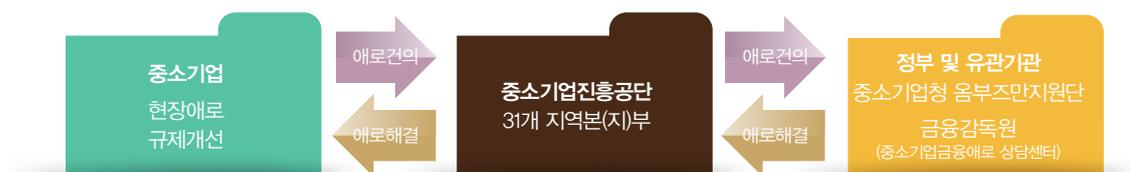
이는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책중개

중진공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31개 지역본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가 상시로 수집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매월 수집된 애로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매월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 정책개선과제로 전달하며 “정부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정책중개 업무절차〉



2014년에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중소기업의 금융관련 애로 58건을 상담·해소하였다.

중진공은 지역본부에서 수집된 규제 관련 애로 234건을 정부에 개선 건의 하였고 이 중 수출 공산품에 대한 영문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 등 총 33건이 정부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되었다.

2015년에도 31개 현장 접점부서와 함께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해소에 기여하고, 그간 해결이 미진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및 파급력 높은 규제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14년도 주요 정책개선사례〉

번호	건의명	건의내용
1	신기술제품(NEP) 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현황) 공공기관이 신기술제품(NEP) 인증 제품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경영애로 발생 (개선) NEP 인증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이 미달성되어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절차 진행을 유예
2	자유무역지구 입주요건 완화	(현황) 자유무역협약기업의 입주요건이 너무 높아, 수출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못해 공실이 늘어나고 있음 (개선) 입주자격 중 수출비중 요건을 50%에서 30%(중소기업) 또는 40%(중견기업)으로 완화
3	수출 공산품에 대한 영문자유 판매증명서(CFS) 발급	(현황) 식품, 의약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제조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영문자유판매증명서(CFS)를 소관부처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공산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입국에서 영문자유판매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미발급 - 그러나, 일부 공산품의 경우, 수출국가별 경제, 문화적 차이 등의 사유로 공산품이 아닌 제품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의 영문자유판매증명서 요청이 있으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근거규정을 두어 증명서 발급예정
4	국토부 지적전산신청시 확인요건 완화	(현황) 국토부 지적전산신청을 한 기업 및 채무관련인의 재산조사신청 대상자의 경우, 국토부에서 관련 서류 원본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한 재산확인·채권회수 업무 지연 및 애로 증가 (개선) 국토부 지적전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징구 점검시 사본(원본대조필) 자료를 이용하도록 개선예정

5	HACCP 인증업체 대상 지자체 위생점검 면제	(현황) HACCP 인증업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위생점검 면제를 건의 (개선) HACCP 인증업체가 당해연도 정기 조사평가를 받은 경우 지자체 위생점검이 면제되도록 지침 개정 예정
---	------------------------------	-------------------------------------------------------------------------------------------------------------

정보제공(간행물발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정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 첫 해인 1979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매일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중소기업 경영·기술 전문지 월간 ‘기업나라’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중진공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차별화된 중소기업 경영·기술 관련 고급정보 제공을 주요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독자 피드백 강화를 위해 뉴스레터 발행 및 배포, 독자 의견조사 정례화를 실시하였다.

독자 피드백 강화 노력으로 ‘독자의 소리’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매일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만족도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특집기사는 독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사화했다.

콘텐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시책 기사를 강화하고자 이달의 시책정보, 정부유관부처 차관급 기고, 중기지원기관 탐방, 중진공 사업 소개 등을 고정 코너로 운영하였으며, 특집/기획/심층취재 등의 코너에서도 시책관련 기사를 강화하여 특허경영(2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정책/FTA 활용법(3월), 공장마련 프로젝트(4월), 기업부설연구소(8월), 외국인고용허가제(10월), 정책자금(11월)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기사 형식도 다양화하여 인터뷰, 사례 취재, 외부기고 등 입체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중소기업 성공사례 CEO 인터뷰, 지원시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취재, 외부전문가(노무, 세무, 중기연구원 등) 기고 등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현장감 있는 사례를 담고자 중진공 지역본지부 및 사업부서의 꾸준한 업체추천 및 협조를 이끌어냈다.

한편 중진공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1,000여개 지점에 『기업나라』를 비치하여 매체 인지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이슈의 확산 및 사례기업 홍보에 기여하였으며, 시중 유통망도 기존 66개에서 137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밖에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모아 소개하는 ‘2014 중소기업지원제도’ 단행본을 부록으로 제공하여 중기지원시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발간자료 목록

구분	자료명	발행시기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 월간 '기업나라'	매월1일	11,000부
단행본	· '2014 중소기업지원제도'	'14.3월	15,000부
단행본	·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14.8/12월	13,500부

2014년 신규 정기구독 회원 수(기업정보회원)

구분	목표	무료회원	유료회원	합계
'13년	7,600	600	8,327	8,927
'14년	7,600	611	7,773	8,384

인력양성

연수사업

연수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역량 및 경영자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현장실무 적용능력을 배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역량향상, 맞춤형연수, 정책연수, 온라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3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2014년 현재 총 128만여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63,181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소기업연수원(안산) 46,821명, 지방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은 16,360명의 실적을 각각 달성하였다. 직무향상연수는 CEO, 창의인재, 생산품질로 연수체계를 개편하고, 원격연수(인터넷)와 모바일러닝을 확대 실시 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업무공백 방지 및 사전학습을 지원하였다.

2014년 연수실적

(단위 : 명, %)

과 정	'13년		'14년		
			계획(A)	실적(B)	달성율(B/A)
공개집합(향상)연수	18,015	직무역량향상연수	15,235	16,341	107.3
맞춤연수	15,542	맞춤연수*	265개사	399개사	150.6
원격(인터넷·우편연수)	16,982	- 문제해결	110개사	168개사	152.7
국제연수	358	- 현장맞춤형	100개사	152개사	152.0
조직활성화(한마음)연수	5,147	- 조직활성화	55개사	79개사	143.6
기업현장연수	10,657	정책연수	5,150	8,794	170.8
청년창업 양성연수	7,454	원격연수	13,000	23,093	177.6
계	74,155	계	33,385 265개사	48,228 399개사	144.5 150.6

* 2014년부터 맞춤연수는 업체수로 실적 산정(맞춤연수 인원수 14,953명 합산 시 63,181명)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연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연수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수 등 공공연수를 중점 실시하였고, 2014년 10월, 강원도 태백에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을 개원함으로써 안산, 광주, 대구 경산, 창원 등 전국 주요거점의 연수원을 운영, 현장 업무공백 등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중소기업의 교육 참가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분야를 기술분야에서 별도 분리, 확대 실시하여 기술연수를 강화하였고, 기존 맞춤형연수, 기업현장연수를 통합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결합한 문제해결형 연수로 전환하고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우수 연수고객 방문마케팅 및 미스터리 쇼핑 확대실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과정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 과정 운영 시 반영하였고, 연수종료 후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중앙 및 지방연수원의 교육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공유·전파하고, 연수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모든 직무역량향상연수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동일 설문을 통한 편차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지식획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학습성취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의 현장실무 적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업적용도” 조사를 확대하여 과정별 맞춤형 성과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만39세 이하)를 선발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원스탑 지원하여 건강한 기업가 정신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창업교육과 코칭, 창업공간 및 1억원 이내 개발비 보조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고 (One-Stop 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기업가 정신 미비, 사업수행능력 미달 혹은 불성실한 입교생을 중간 퇴교시키며(중간퇴교시스템), 마케팅 및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등의 후속 연계지원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청년층 기술창업의 사업화기간 단축과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2014년에는 건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준비된 창업자 선발을 위해 심층심사를 확대(1박2일→2주간) 하고, 창업교육의 내실화 및 실무형 개편, 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였으며,

지방 사관학교 선발규모를 확대('13년 33.6%→'14년 52.4%)하고, 지방 선발 인원의 25% 이상을 지역

〈'14년 입교자 선발절차〉



특화산업 창업자로 선발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시 소재)를 개소하는 등 지방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10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2개), 해외 유관기관 등에 전수하여 청년 창업자 발굴·육성의 전문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년에는 총 1,570명이 입교 신청하여 3단계 심사를 통해 이 중 307명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매월 창업활동 보고, 중간평가 2회 및 최종평가 1회 실시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23명을 중간 퇴교시켜 최종 284명이 졸업하였다.(졸업식 개최 : '15. 3. 26일, 중기청장 참석)

제4기 청년창업자 입교 현황

(단위 : 명, 업체수)

입교자 현황 ('14. 12월말 현재)					운영 특징
구분	신청	선발(A)	퇴교(B)	졸업(A-B)	
일반 창업	987	227	22	205	• 사업 수행능력평가(2회 중간평가) → 미달자 퇴교 조치
글로벌창업	583	80	1	79	
계	1,570	307	23	284	

제4기 청년창업자 기술분류별 현황

(명, %)

구분	지식 S/W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환경 에너지	생명 식품	공예 기타	항공 섬유	계
일반창업	31	49	40	11	10	9	41	14	205(72.2)
글로벌창업	-	11	21	17	5	7	8	10	79(27.8)
계 (비중, %)	31 (10.9)	60 (21.1)	61 (21.5)	28 (9.9)	15 (5.3)	16 (5.6)	49 (17.2)	24 (8.5)	284(100.0) (100.0)

이들 284명은 1년의 사업기간 중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기술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미국(피츠버그) 및 독일(뉘른베르크),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4개 등 총 45개의 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276건을 출원 및 등록하고 292억원의 매출과 60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추진 실적

('13. 12월말 기준)

구분	1기 졸업자	2기 졸업자	3기 졸업자	4기 졸업자	비고
창업(유지)	212명	213명	254명	284명	
현 고용인원	1,072명	1,176명	1,147명	603명	청년CEO 포함
매출액	1,140억원	793억원	366억원	292억원	누적액
지재권	315건	450건	387건	276건	누적 건수
국내·외 수상	70건	85건	103건	45건	누적 건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졸업 후 5년간 성과 실태파악 등 성장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창업기업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맞춤 연계 지원하고 있다.

즉 졸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전수 실태조사(연 4회)를 실시하여 투자(77개사 417억원), 융자(324개사 345억원), 국내·외 전시회(22회 189개사) 참가 등 연계지원하여,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생존율을 1기 졸업생 83%, 2기졸업생 92%, 3기 졸업생 100%를 유지토록 하였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14.8.21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사용되며,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가 성과보상기금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00% 납입

200% 이상 납입

- **가입대상 : 중소기업 + 핵심인력**
중소기업은 中企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업체
핵심인력은 대표지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 **가입금액 :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0이상』의 비율로 납부
- **공제금리 : 2.68% (연단위 변동금리)**

내일채움공제는 출범 후 '14년말까지 871개 기업에서 2,255명이 가입하여 당초 목표인 1,600명 대비 40.9% 초과 달성하였다. 매월 평균 납입금액은 근로자가 127천원 사업주가 307천원씩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공제가입실적

가입목표(A)	가입실적			달성율(B/A)
	기업수	인원수(B)	가금조성	
1,600명	871개	2,255명	2,666백만원	140.9%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을 활성화하여, 전체 가입자의 29.8%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였으며 온라인 청약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과보상기금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이 일본, 미국, 인도 등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110명(수도권 59명(53.6%), 비수도권 51명(46.4%))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국가별로는 기초소재 부품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IT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한 인도, 기초과학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미국 출신 인력이 다수(38.2%)를 차지하였다.

2014년도 사업 성과분석 결과, 외국전문인력 도입으로 기술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45개 업체, 33.8%)이 가장 많이 되었고, 차순으로 기존 제품/기술의 업그레이드(42개 업체, 31.6%), 신제품/신기술개발에 도움(34개 업체, 25.6%)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고급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개선하여 전년 대비 선진국 인력 및 석·박사 학위자, 10년 이상 경력자 채용비율이 증가하였다.

* 선진국 인력(미국, 일본, 독일 등 13개국) : ('13년) 26.4% → ('14년) 33.6%

* 석박사 학위자 : ('13년) 52.7% → ('14년) 53.7%

* 10년 이상 경력자 : ('13년) 26.4% → ('14년)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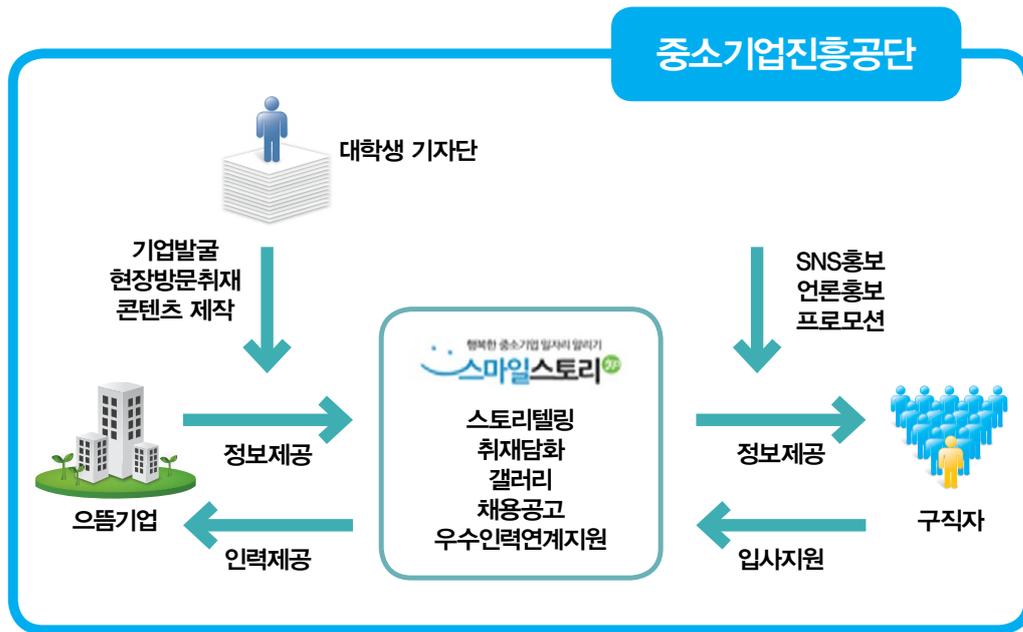
아울러, 문화적 근무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전문인력을 위해 기초 어학교육과 함께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경제현황 교육, 한국 중소기업 문화안내 및 실제사례 소개,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으뜸기업, 스마일스토리知)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뜸기업)을 발굴·선정하여, DB구축(으뜸 e 대학생기자단의 콘텐츠 제작) 및 정보제공(스마일스토리知 웹사이트)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력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2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3년도에는 중진공지원 우수 중소기업 중 505개사 발굴·선정하여 으뜸기업 1,004개사를 확정지었으며, 1,208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였으며, '14년도에는 509개사 선정 후

1,203명의 초대졸자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였다.



웹사이트 스마일스토리(www.smilestory.or.kr)는 선정된 오피스기업에 대해 오피스 e대학생기자단이 현장을 취재한 후 작성한 스토리텔링, 취재담화, 갤러리스진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14년도 하반기부터는 “오피스그룹 공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94개 대학취업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스마일스토리 사이트 내에서 오피스기업의 상시 채용공고를 확인 및 입사지원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행사로 실시하는 잡매칭데이 등을 통해 오피스기업-대학생간의 인력매칭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인크루트' 및 '워크넷' 등에 오피스기업 채용공고관을 구축, 스마일스토리(www.smilestory.or.kr)와 연계(배너링크)하여 청년구직층에게 오피스기업 정보를 널리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바로알기 사업은 미디어 홍보,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바로 알리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층에 올바른 직업관과 진취적인 직업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에는 미디어 홍보의 일환으로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총 52회)하여 52개의 다

양한 기업을 소개하고, 99명을 취업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바로알기 코너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체험캠프를 개최(10회, 617명)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문화콘텐츠(연극)를 활용한 중소기업 바로알기 특강(35개교, 1,812명), 학부모와 특성화고 학생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바로알기 토크콘서트(8회 4,167명)를 진행하였으며, 중학생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탐방 특강(16회, 623명)을 실시하여 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은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중심의 체험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관련 책자(중소기업과 나의 꿈, 인재가 미래다 등)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동영상 및 강의안)를 개발·보급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효과 확산을 위해 기여하였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동 사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완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추진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VIP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동년 7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2014. 7. 22 시행)하였으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제정(2014. 7. 22)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하였다.

사업의 주요 경과로는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접수 공고(2014. 7. 28), ② 정량(서면) 평가 및 정성(현장) 평가(9월~11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14.12.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식(‘14.12.23) : 100개사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획보도(동아일보) 등이다.

2015년도의 주요 추진 계획은 2014년도 100개 기업 지정에 이어 150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신규 지정하여 저변을 확대(단계적으로 지정기업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1,000개사 지정 계획), 기업의 현장 적응성과 정부정책의 현실성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모델개발과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평가지표 개선안 등을 반영하여 2015년 5월 중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개정된 운영요령에 따라 6월 중 2015년도 사업을 공고하고 지정기업 신청·접수 등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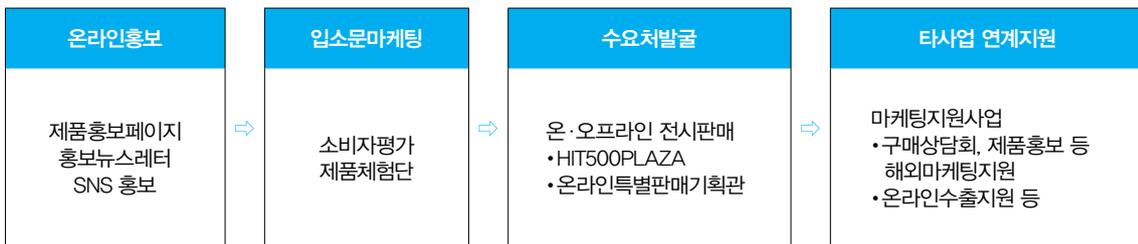
01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마케팅·글로벌화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HIT500이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마케팅과 판로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중기제품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된 후, 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2014년의 경우 HIT500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제품 선정 절차에 제품 실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유망제품 선정을 강화하였으며, 선정된 우수 유망제품은 해외 유통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K-HIT PLAZA에 입점시킴으로써 우수 중기제품 해외진출을 강화하였다. 또한, HIT500 PLAZA와 온라인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연간 2,528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판로지원 사업으로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 하였다.

향후 HIT500사업은 국내 상품성 검증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보다 활성화하여 정부 마케팅지원 사업의 시발점으로서 중진공 운영 국내외 마케팅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원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HIT500사업 지원실적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HIT500(제품선정수)	510	511	327*	1,348

* 2014년의 경우 유망제품 발굴 강화를 위해 제품 실물평가 및 선정규모 축소.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은 수입품, 고가제품, 대기업제품과의 품질비교분석을 통해 “착한 중소기업 제품(친환경·착한 가격·고품질)”을 발굴하고, 선정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비자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추진,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인식개선과 판매촉진에 기여한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도부터 정식사업을 추진하여 블루투스 헤드셋, 실리콘 주방용품 등 11개 품목 군에서 28개의 스마트제품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기획전 (11번가,G마켓), HIT500PLAZA 우선 입점 등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YTN뉴스와이드 내 기획코너 방송, 지하철 역사 광고(PSD) 등 홍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였다.

'14년 스마트제품 발굴 현황

발굴처	품목분야	선정 우수제품수
자체 발굴	아쿠아슈즈	1
	헤어고데기	1
	블루투스헤드셋	4
	실리콘주방용품	4
	천일염	2
	유아용세제/섬유유연제	3
	선스프레이	4
	인라인스케이트	3
	구스다운침낭	1
	성인용기저귀	3
외부추천	모발건조기	2
11개 품목, 28개 제품		

아울러, 중소기업 CEO 및 직원을 대상으로 친소비자경영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착한제품 생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14년 사업성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는 품질 비교테스트 절차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교테스트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스마트제품에 대한 후속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케팅기반조성사업

마케팅기반조성사업은 마케팅 실행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통채널 전문가의 마케팅 코칭, 디자인 향상 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마케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우수 대형유통망에서 활동하는 유통전문가(MD)로부터의 1:1 코칭을 통해 유통망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기획 및 디자인 향상 등 상품성 강화, 마케팅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사업 참여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동안 유통채널별 현직 MD로부터의 원-포인트 코칭을 통해 민간 대형유통망 신규 진출까지로 이어지는 다양한 성공스토리를 창출했으며, '14년도에는 마케팅 코칭 300개사, 디자인향상지원 200개사, 마케팅 교육 611명을 지원하였다.

'14년 마케팅기반조성사업 지원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코칭	194개사	300개사
상품성향상지원(디자인)	100개사	200개사
마케팅실무교육	538명	611명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사업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사업은 해외 대형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외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진출 관련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

이 유망한 중소기업 우수제품(Made in Korea)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지원사업은 국내생산 우수제품의 DB를 구축 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해외전시판매장(K-HIT PLAZA) 운영, 유통망 형태별 직접진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형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및 현지 유통망과 연계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해외전시판매장(K-HIT PLAZA)은 미국, 인니, 독일,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8개소에 설치되어 운영하여 총 505개사 3,180개 품목 입점을 지원하였다.

중기제품 전용매장(K-HIT PLAZA) 설치 현황

구분	미국		독일 기센	인니 자카르타	중국			베트남 호치민 (신규)
	뉴저지	LA			칭다오	베이징(신규)	정저우(신규)	
개소	'12.12	'13.11	'12.12	'12.12	'13.12	'14.1	'14.12	'14.12
위치	Westfield Garden State Mall	LA Beverly Hills 지역	에데카 内 (4개소)	롯데마트 끌라빠가당점	까르푸 신흥점	롯데마트 공익서교점	데니스 쇼핑몰	롯데마트 락빈점
입점	163개사 371개 품목	74개사 640개 품목	28개사 65개 품목	67개사 307개 품목	32개사 769개 품목	74개사488개 품목	31개사 155개 품목	36개사 385개 품목

해외 유통망 직접진출 프로모션으로는 홈쇼핑 진출지원, 상품판촉전, 바이어초청상담회 등 해외유통망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소비자 직접판매 13억원, 연계판매 59억원, 프로모션 37억원 등 2014년 한해 109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13년 사업시행 후 2년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상품소싱시스템 구축 및 국내외 수행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전년 대비 판매실적이 향상되는 등 사업초기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부터는 기존 마련한 유통망 진출지원 기반을 토대로 사업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매출 및 글로벌화 진출 성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5백만불~5천만불 미만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3년간 마케팅/R&D/금융 집중지원을 통해 5천만불 이상 한국형 히트 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한 프로그램 수행사를 활용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사업은 참여기업에 대한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기업 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기업의 맞춤형 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총 9개의 전용 프로그램이 있다.

2014년에는 기존('13년) 7개 세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참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MOU, '14.4)하여 퇴직무역인력 활용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였고 SGI서울보증과도 사업 참여기업의 보험요율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14.4)을 체결하였다.

* 보증보험요율 10%인하, 기업별 보증한도 10억~30억 추가확대 등

2014년 세부 프로그램 개선 현황

구분	년도	2013년 (7개 프로그램)	2014년 (8개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글로벌 브랜드 개발 해외홍소핑 및 기업홍보동영상 제작 글로벌 경영컨설팅 자음마케팅 프로그램 해외전시회 참가 제품 및 외국어 포장 디자인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해외홍소핑 및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글로벌 경영컨설팅 新 마케팅 프로모션(舊 자음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 제품 및 외국어 포장 디자인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퇴직무역인력 활용 자문 서비스
필수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 경영컨설팅 : 참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 新 마케팅 프로모션 : 참여기업의 수요에 따라 자유기획을 통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개선된 세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개발 7건,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50건, 新 마케팅 프로모션 프로그램 42건 등 총 178개 업체를 대상으로 263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4년 세부 프로그램 지원현황

구분	전용프로그램							계
	글로벌 브랜드개발	기업홍보 동영상	新 마케팅	해외 전시회	글로벌경영 컨설팅	제품·포장 디자인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건수	7	50	42	128	5	21	10	263

온라인수출지원

1)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Gobizkorea(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사업 개시 후 40,405 개사 163,226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다.

'14년에는 1,235개사의 상품페이지 제작과 120개사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총 11,352천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2) 해외 홍보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원

온라인 무역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 교육, 수출상담회도 진행하였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사업은 80개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14년에는 신흥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맞춤형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아랍어와 스페인어 온라인수출관을 신규 구축하여 총 6개관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흥시장 공략에 나섰다.

인프라 구축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4년 총 2,327만불의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02%('13년 11,520만불) 증가한 추진성과를 달성하였다.

2013년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지원실적

세부사업명	실적(건수)	수출실적(US천불)
상품페이지 제작	1,235	10,367
홈페이지 제작	120	985
검색엔진마케팅	80	1,953
온라인수출관	800	9,965
합계	2,235	23,270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은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알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Gobizkorea 영문사이트를 통해 해외바이어의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06년 중소기업수출경쟁력 강화대책(안)으로 시작되어, 2008~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수출실적 35백만불, 2012년 42백만불에 이어 2013년에는 49백만불, 2014년에는 53백만불의 수출실적을 창출하였다.

중진공 지역본·지부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 해외바이어가 상품매칭을 원하는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 매칭하는 해외바이어알선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바이어에게 중소기업 동반방문, 통역, 무역상담, 추가 제품소싱 등을 후속 지원하는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방한하는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현장미팅 총 130건에 대하여 거래조건, 견적, 벤더등록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을 지원하였다.

특히, 정부정책 목적성에 부합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HIT500 참여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홍보를 통한 바이어 연계, 유효인콰이어리 발굴, 무역실무 지원 등을 지원하였다.

해외바이어알선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수출성사율을 제고하였으며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개발을 위한 해외바이어 대응전략 교육과 홍콩바이어 대상 중기 우수제품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바이어알선	521건	1,218건	1,380건	1,506건	1,706건	1,908건
방한바이어 지원	-	29건	107건	122건	130건	130건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60개사	70개사	70개사
수출실적	11,413천불	30,203천불	35,501천불	42,042천불	49,018천불	53,030천불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를 통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1,986개사이며, 참가기업에 대한 타 사업 연계지원 노력을 통하여 1,640개의 업체가 자금, 연수, 건강진단 사업을 활용하여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14년도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14. 12월말)

사업명	실적		성과		
	횟수	참가 기업수	상담		계약체결
			상담금액 (백만불)	상담 횟수	계약금액 (백만불)
해외전시회	32회	261개	496	9,359	8
무역사절단	123회	1,081개	3,061	15,638	42
수출상담회	6회	163개	42	291	8
계	161회	1,505개	3,599	25,288	58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 참가업체 연계지원 실적

(’14. 12월말)

사업유형	참가 기업수 (a)	연계지원(업체수)				
		정책 자금(b)	연수 (c)	건강 진단(e)	계 (f=b+c+d+e)	연계율 (f/a,%)
해외전시회	261	51	123	23	197	75.5
무역사절단	1,081	197	562	87	846	78.3
수출상담회	163	21	101	13	135	82.8
지역특화	481	95	326	41	462	96
계	1,986	364	1,112	164	1,640	82.6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3-4평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임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4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시안), 일본(도쿄),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 및 BRICs 국가에 설치·운영(12개국 20개소)중에 있다.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러시아	UAE	인도	멕시코	카자흐스탄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시안	도쿄	호치민	하노이	상파울루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멕시코시티		알마티
입주규모	18	23	12	23	15	21	14	26	10	7	15	12	11	10	10	10	6	16	10	7	276

2014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6억 3,275만달러이며,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전보다 11.7%, 매출액은 12.4% 증가 하는 등 전체적인 입주기업의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全) 문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7.3%에 이르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성과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독자 진출 대비 수출인큐베이터 이용시 비용 절감표

성과지표	입주 전(a)	입주 후(b)	증가율(%) ((b-a)/a*100)
매출액(억원)	160.5	180.4	12.4
수출액(10만불)	48.7	54.4	11.7
비소재국 수출액(10만불)	13.2	14.3	8.3
수출전문인력(명)	5.5	6.1	10.9
수출상담건수(건)	59.4	129.2	117.5
신규바이어건수(건)	11.1	24.7	122.5
신규바이어 발굴소요기간 (일수)	104.1	97.8	△6.1

* 출처 : 수출인큐베이터 신규개소 수요조사 및 입주기업 성과분석·만족도조사(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12)

FTA대응역량강화사업

우리나라는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3개 대륙 52개국과의 FTA타결('15.3.30 기준)로 세계경제의 70% 이상이 우리경제로 편입되는 등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업무 애로사항 및 해외마케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중진공은 FTA 수출컨설팅, 교육, 홍보, 글로벌마케팅 등 FTA 활용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였다.

2014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 수출컨설팅, FTA 교육, 글로벌마케팅, 연구·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회계사·세무사·수출전문가 등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FTA 수출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및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는 FTA대행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순 애로해결에서 기업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소외지역과 공단밀집지역에서 지역별 FTA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FTA 원산지 실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CEO 및 담당자의 FTA활용 의식을 고취하였다. 특히, 현장방문 1:1 교육을 통해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시간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담당자별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시행하여 수진업체의 만족도가 96%로 높았다.

FTA대응역량강화사업 주요 실적

구분	실적	주요 내용
FTA·수출 컨설팅	1,114개 업체	FTA원산지확인·증명 및 수출애로 해소
FTA교육	450회, 7,302명	원산지실무, 통관,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FTA에 대한 정보 제공
글로벌마케팅	17개사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브랜드 파워가 강한 FTA체결국 현지기업간의 공동브랜드사업화(Co-Branding)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 (공동브랜드사업 10개사, 기술사업화 사업 7개사)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유수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와 협력파트너의 발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며, 해외유통망을 확보하고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진출지역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는데 10개월 기준으로 북미·유럽 등 지역은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중국·동서남아 등 기타 지역은 기업 당 최대 1,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49개국에 143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전략프로젝트 수행사(7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제휴(수출) 지원, 전략적 품목 및 시장 마케팅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시급한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단기 컨설팅(42개사)도 실시하였다.

2014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285개사로 수출실적 449백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13~'14년)

구분	민간네트워크수 (개사)	자원기업수 (개사)	수출실적 (백만불)	투자유치 (백만불)	현지법인설립 (개사)	기술협력계약체결 (개사)
2013년	135	353	565	1.2	14	9
2014년	143	285	449	0.33	19	14

사업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리서치기관((주)리서치랩)의 설문조사 결과, 동 사업 전체 만족도는 82.97점이며, 전년(81.02) 대비, 1.95점 상승하였다. 2015년부터는 일반 프로젝트 만족도(81.82) 대비, 만족도 결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난 전략프로그램(83.04)를 확대 추진한다.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10개사 내외)을 구성해서 사전시장조사, 시험·인증 및 매뉴얼제작 등 현지화 컨설팅, 공동브랜드 제작 등 현지마케팅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수탁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지원사업, 해외대형유통망진출사업 등과 연계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총 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였다.

한·미, 한·EU 등의 FTA 체결로 해외수출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는 흐름에 따라, 2014년 수출컨소시엄 타겟시장은 북미와 유럽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지수요를 고려한 진출 유망 분야 및 품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14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추진현황

컨소시엄명	수행기간	타겟시장	참가업체수	예산(백만원)
북미 자동차 부품 수출컨소시엄	'14.3.1~'12.31	북미	8	106
EU 뷰티&헬스케어 수출컨소시엄	'14.3.1~'15.2.28	독일,스위스 등 유럽 5개국	9	139
DPBB*~가정용품 수출컨소시엄	'14.3.30~4.2	미국	10	36
DPBB~전기전자 수출컨소시엄	'14.7.20~7.23	미국	10	36
계			37	317

*DPBB (Direct Presentation to Big Buyer) : 해외대형유통망 납품 바이어와의 상담회 프로그램

2014년 자동차부품 컨소시엄은 약 75만불의 계약을 달성하였고, 뷰티&헬스케어 컨소시엄의 경우 약 10만불 계약 성사와 더불어, 약 98만불 수출을 예정하여 총 약 108만불 수출을 진행 중이고, DPBB 컨소시엄의 경우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현지 바이어 계약 및 유통망 테스트마케팅 등을 활용, 총 78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2014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세부성과

컨소시엄명	계약액(천불)
북미 자동차 부품 수출컨소시엄	747
EU 뷰티&헬스케어 수출컨소시엄	1,079*
DPBB-가정용품 수출컨소시엄	780
계	2,606

*수출예정금액 98만불 포함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지역 내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지원, 산업기술협력관 교환을 통한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40개국 68개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협력,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에 파견된 산업기술협력관을 통해 현지의 투자진출 상담, 방문 지원, 협력파트너 알선 및 행사주관 등 현지 진출 등을 밀착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코리아데스크를 해외 진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투자인허가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여 해외 파견 산업기술협력관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다.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5년, 중기청과 산동성 정부와의 MOU체결로 설립되었으며,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인사, 노무 등) 실시, 포럼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조속한 현지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특성화 과제로 우수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총 2건(750천불)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성사시켰다.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는 정부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Eco-Innovation사업을 추진하여 총 2회(150명 참석)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10개사의 녹색컨설팅을 지원

하였다. 컨설팅 결과 연간 958백만원의 비용절감과 이산화탄소 959톤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설치된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는 유휴설비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총 27건의 거래를 알선하였다. 또한, 한·인니 중소기업간 녹색 협력을 위해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GBC(Green Business Center)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마련에 일조하였다.

중진공은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기술협력관 교환(14개국 20명), 사절단 교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국제회의 및 외빈 방한 지원 등 해외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2014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분	실적	비고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20회	스페인, 이태리 등 14개국 20명 교환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지원	10회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세미나 및 설명회	10회	해외진출 세미나 및 설명회(10회)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2005년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APEC 21개 회원국 중소기업 혁신지원을 위하여 중진공 내 설치된 전담창구이다.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설립·운영되다가 2009년에 중진공으로 이관되었다.

2014년은 “APEC 중소기업 혁신허브(HUB)” 기능을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역내시장 진출지원을 도모하였다. 혁신컨설팅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및 강화하였다.

2014년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사업실적

협력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정책전파 (정보교류)	웹사이트(www.apec-smeic.org) 운영	일일방문건수 175건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장관(1회:9월)/실무그룹(2회:3월,9월)
중소기업간 협력 (기술교류)	혁신컨설팅 실시	20개사/3개국
	APEC 비즈니스 매칭행사	32개사(10월, 홍콩)

혁신센터 사업은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國格)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 만큼 계량적 성과창출 차원을 넘어 거시적으로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

남북협력지원사업은 남북경협 확대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목표로 대북진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연수, 정보제공 등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단계별 요구에 대응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2010년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진출기업의 사업추진이 여전히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2014년 남북협력지원사업 추진 여건 또한 위축되었다.

이에, 중진공은 개성공단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내수판로개척을 위해 대형유통사 및 제조대기업 구매담당자를 개성공단으로 초청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1:1구매상담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 주재원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법인장 및 관리자 경영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교육기회가 전무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과 관리자에게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2013년 대북진출기업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누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북한내륙지역	24	10,870	-	-	24	10,870	
개성 공단	협동화	24	10,285	-	-	24	10,285
	개별	20	19,112	56	37,723	76	56,835
	소계	44	29,397	56	37,723	100	67,120
합 계	68	40,267	56	37,723	124	77,990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4 Annual Report

02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고객중심의 CS경영 추진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2014년에는 “고객중심의 CS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CS경영 추진 Map』을 수립하고,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고객 불편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고객중심의 CS경영체계 확립’ 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라는 CS Credo(사명)을 선포하고 고객중심의 CS경영 추진에 대한 전사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우선,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딸기 Day’, 부서 간 소통을 돕는 ‘Joint Day’, 조직 내 칭찬문화 확산을 위한 ‘칭찬 마일리지’, 내부직원들의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중진공 고객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점점부서 직원들의 유선상담 업무를 경감시켰다. 이러한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은 고객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이라는 추진 전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중소기업 현장 집행업무 Work Smart’를 일구어 냈다.

‘중소기업 현장 집행업무 Work Smart’를 통해 직원들뿐만 아니라 중진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물들을 자아냈다. 이러한 Work Smart의 백미는 바로 『정책자금 Paperless 시스템』구축이었다. 세무회계정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들의 국세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의 발급 부담을 줄였고, 중진공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연동하여 자금신청과 대출약정 시 필요한 행정정보 서류들(주민등록 초본 등) 또한 중진공 직원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거래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위한 ‘중진공-은행 온라인 시스템 구축’ MOU를 체결하고 본격 가동을 위해 개별은행들과 절차 및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고객 불편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본부부서는 25개의 Core과제를, 점점부서는 36개의 CS경영 실천과제를 추진하였고 결과를 성과평과와 연계하고 우수사례는 포상 및 공유함으로써 고객만족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 부서의 고객만족 활동을 책임지는 지속경영리더를 고객응대 역량이 우수한 4급 이상 직원으로 지정·운영하여 각 부서들의 과제 시행에 대한 실천력 또한 확보하였다.

아울러,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교육(집합교육 12회)을 통해 고객 소통능력을 강화하였고 중진공 업무를 보조하고 사업 수행을 돕는 협력고객들(전문위원, 컨설턴트 등 269명)에 대해서도 맞춤형 CS교육을 실시, 전사 서비스 품질의 균질화를 이루어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PCSI 제고를 위한 행동요령> 등의 시각화 자료를 배포하여 직원들의 CS 의사결정을 제고하였고, 대외적으로는 CS시각화 활동(CS부채, 쇼핑백, 스티커 등) 및 모바일 감사카드 발송 등 중진공의 CS경영활동에 대한 고객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PCSI 제고 행동요령



맞춤형 CS교육

구분	14년
정책자금 CSI	95.7
전화친절도 (고객의 직원 추천도)	94.4 (85.7)
집합교육 만족도	95.4
중기청 사업수행기관 종합만족도	88.9
정책자금 Paperless 시스템 구축	

CS경영 추진 성과

윤리경영 추진전략 재수립 및 시행을 통한 반부패·청렴 실현

2014년도는 대내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윤리 체질개선을 통한 부패·비리 무사고 기관 구현”을 윤리경영의 목표로 정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취약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책무성 강화”, “임직원 윤리의식 개혁 및 생활화”, “모니터링 강화” 등 3개 전략과제와 8개 실행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우선, 추진전략 및 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관련 조직체계를 개편하였다. 첫째, 윤리위기 신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둘째, 서비스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 선정 및 이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비대위 내 윤리경영 분과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기관의 핵심사업인 정책자금 집행과정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윤리취약부문 개선과제 11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100% 이행완료 하였으며, 직무관련 내부시스템 및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제도 강화를 통해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외부(불법 브로커 등)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직무윤리 취약요소를 반영한 예방적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확산운동 참여부서를 고객접점 부

서(36개)에서 사업부서(9개)까지 확대하여 사업기획 단계부터 윤리 리스크가 선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45개 부서에서 개선과제를 추진하였고, 우수사례는 광역별 CS·윤리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으로 전파, 윤리경영 확산에 노력하였다.

임직원 윤리수준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윤리교육(집합 12회, 온라인 1회)을 통해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였고, 윤리경영 문화 확산 및 가치공유를 위해 협력고객(728명)과 중소기업인(177명)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제1회 윤리경영의 날”을 개최하여 청렴시계 제막, 임직원 청렴결의, 기관장 윤리메세지 전달, 전문가 초청 특강, 청렴리본 패용, 윤리퀴즈대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단체 가입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임직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전문 연구기관 컨설팅을 통해 핵심가치, 중기 실행과제 등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였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고객대상 윤리실천지수를 상시적으로 조사하여 해당부서로 환류 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시책개발을 위한 「Clean SBC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청렴선도기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청렴시계 제막



청렴 결의

구분	14년
윤리상시고객만족도	94.6
윤리경영실천지수	92.5
중기청 정책만족도 (윤리의식 및 도덕성)	94.3

윤리경영 추진 성과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수행

중진공은 2014년 사회공헌 추진 목표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경영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기관의 핵심역량과 사업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반, 상생·협력 추진반, 사회봉사 추진반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추진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및 공감 보드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 직원과 함께’, ‘중소기업과 함께’, ‘이전지역과 함께’로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전 직원과 함께’하는 재능기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진단 및 현장연수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다. 그 밖에 본사 이전지역 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알리기 등 초등 멘토링 교실을 지원하였으며, 진주 비즈 서포터 활동을 통하여 관내 영세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으뜸기업 CEO들이 강의를 기부하는 ‘으뜸기업 CEO 특강’을 30개 대학, 5,6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무료 특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앞장섰다.

마지막으로 본사 ‘이전지역과 함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장애우, 복지시설 관계자, 중소기업인 등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지역주민·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행사 통역자원봉사 및 헌혈캠페인 등 지자체·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사회공헌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사회공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54개 과제에 대해 평가하여 최우수 ‘중진공-중소기업 릴레이 재능기부’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대외적으로도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에서 수여하는 ‘2014년 올해의 프로보노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등 멘토링 ‘생생교실’



으뜸기업 CEO 특강

구분	14년
인당 평균봉사시간	11.1
재능기부 실적	53.5
수증기관 만족도	4.6

사회공헌 추진실적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국정과제 등 신규사업 성공적 추진 및 본사지방이전 조기정착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BI 확대·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과,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확대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 정부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총 3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다. 증원된 인력의 배치와 함께,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추진 방향	조직개편 내용
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성장연수본부를 글로벌판로본부, 인력기술본부로 나누어 마케팅사업 전담 임원을 배치 * 광역본부는 중부권과 남부권을 통합 • (부서) 기존 수출마케팅처와 국제협력처를 기능에 따라 통합·재편하여 글로벌사업처, 마케팅사업처로 개편
② 창업지원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기능 일원화를 통한 연계지원을 위해, 녹색기술처를 창업기술처로 개편하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창업지원 기획 및 관리 기능을 통합 * 청년창업센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보육센터
③ 연수 및 인력지원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연수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연수원, 지방연수원 및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인력기술본부장 소관으로 일원화
④ 본사 지방이전 조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혁신 기반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속경영실을 창의지속경영실로 개편

정부3.0 효과적 추진기반 마련

정부3.0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내부적으로 또는 민간과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이며,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중진공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중진공 정부3.0 중장기('15~'17) 실행계획을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변화관리로 구분하여 총 4개 분야, 21개 과제를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중진공 정부3.0 중장기 실행계획의 과제 점검을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및 신규과제 발굴 등을 통해 중진공 정부3.0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진공 정부3.0 중장기('15~'17) 실행계획 주요 과제〉

구분	과제명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 기업진단 기반의 맞춤형 정책자금 및 연계지원 강화
	• 위기기업 및 재도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확충으로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역량진단 실시
	•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수출지원사업 온라인 포털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중소기업연수원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업무지원시스템(SBC 지식 in) 고도화
	• 중소기업 진단기관간 경영개선진단 협력 활성화
	• 정책자금 이용 시 제출서류 온라인시스템 안정화
	• 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 SNS 채널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사책 제공 및 성공사례 공유
	• 중진공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 강화
	• 원문정보 공개를 위한 체계 확립
	• 공공데이터 개방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 활용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중심으로 OpenAPI 개발 및 개방
변화관리	•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 내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부3.0의 중소기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연수 실시
	• 정부3.0 관련 교육 실시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년연장, 사업영역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재정립하는 한편, 핵심인력 성과보상사업 등 신규사업에 인력을 우선 충원(15명)하고 고성장기업육성 등 신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2명을 증원하였다.

진단기반 정책자금 등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종분석을 통한 기술직 채용분야, 인원을 산정하여 18명의 기술·전문인력을 포함한 48명을 신규채용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배치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장시간근로현황 분석 후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차등 인력충원을 적용, 본사 이전에 따른 업무비효율 방지를 위해 8개 직무, 10명을 원격근무 직무로 지정하고 정책자금 등 4대 업무를 중심으로 29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업무량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채용 단계부터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위해 신입직원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선하였다. 조직문화 및 기획력 배양을 위해 인턴십 기간동안 전원 본사배치하고 업무 멘토링은 입사 3년차 미만 직원이, 조직적응 멘토링은 4급직원이 수행토록 하여 효율적 업무·조직적응을 지원하였다. 또한 개인별 직무역량, 교육성적 및 동료평가를 종합한 인턴십 평가 후 기준점수(80점) 미달자 당연탈락 및 임원으로 구성된 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직원 인턴십 성적 향상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였다.

전문인재 중점 육성

2014년은 중소기업 현장에 강한 직무전문가 육성과 중진공 HRD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직무교육 등 중요 교육에 2배의 학점을 부여하는 '차별적 학점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핵심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직무교육 비중은 전년대비 5.6% 상승한 반면, 1인당 교육비는 10만원 가량 절감하였다.

교육 실적				직무교육 비중
구분	'13년(a)	'14년(b)	증감(b-a)	
• 총 교육시간	106,610시간	99,397시간	△7,213시간	<p>2013년 72.8% 2014년 76.9%</p> <p>직무교육시간비중</p>
- 직무역량	77,642	76,399	△1,243시간	
- 리더십역량	3,759	3,098	△661시간	
- 공통역량	25,209	19,900	△5,309시간	
• 1인당 교육비	134만원	124만원	△10만원	
• 직무교육 비중	72.8%	76.9%	5.6%	

또한 교육 성과평가 강화 및 과정개선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교육과정개선회의를 신규로 실시하였고, 전년도 처음 실시하였던 FGI 조사를 연 4회에서 8회로 확대하여 과정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FGI 및 과정개선회의 내용 반영을 통한 개선 실적

과정명	교육만족도	강사만족도	과정명	교육만족도	강사만족도
무역실무기초	4.43→4.65	4.23→4.67	법률노하우	4.24→4.69	3.95→4.93
기업진단입문	4.30→4.71	4.20→4.87	역설활용	4.63→4.88	4.76→5.00

중진공의 핵심 업무인 진단기반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진단역량 Jump-u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역량수준에 따른 4단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역량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진단 종합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13) 87.5 → ('14) 88.9

이 외에도 부채감축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대출 사후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감사인 및 채권회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회수 고급과정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무역실무 과정을 신규 개설하였다. 또한 본사 지방이전 시대에 맞춰 기술동영상 모바일 과정을 도입하여 280명의 직원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현업적용도와 같은 교육성과 지표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분	교육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용도
13년	3.84	(학습전)2.73→(학습후)4.06 (1,331)	4.01
14년	3.95(0.11↑)	(학습전)2.57→(학습후)4.02 (1,451)	4.21(0.20↑)

* 교육만족도 및 현업적용도는 사내·외 교육 합산임

중진공은 직급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도 강화했다. 임원, 부서장, 팀장 등 각각의 직급에 맞춰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중진공 리더십 모델인 상·행·통(想·行·通) 모델을 반영한 리더십 과정을 개발하여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리더십 지수는 3.86을 나타내어 전년대비 평균 0.06p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상 강화

조직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개편하여 실적 자동집계 강화 및 사용자 맞춤형 화면을 구현하는 한편, 성과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현장부서에서 신속하고 자율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최종성과 창출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고도화 하였다.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지표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단순 투입 지표를 최소화하고 핵심성과 위주의 결과지표 비중을 확대하였다.

〈핵심성과 중심의 지표 고도화〉

구분	13년	14년	증감
전략지표 비중	53.5%	66.0%	12.5%p↑
결과지표 비중	31.3%	47.0%	15.7%p↑
지표의 적정성	3.72점	3.94점	0.22점↑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직여부에 따른 차등을 확대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폭을 높이고, 직무 난이도에 따른 차등적 보상 강화를 위해 직무급 비중을 확대하였다. 성과기반의 인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부서장 및 팀장 보직 우선부여, 성과부진 부서장에 대한 보직 미부여 등의 성과·인사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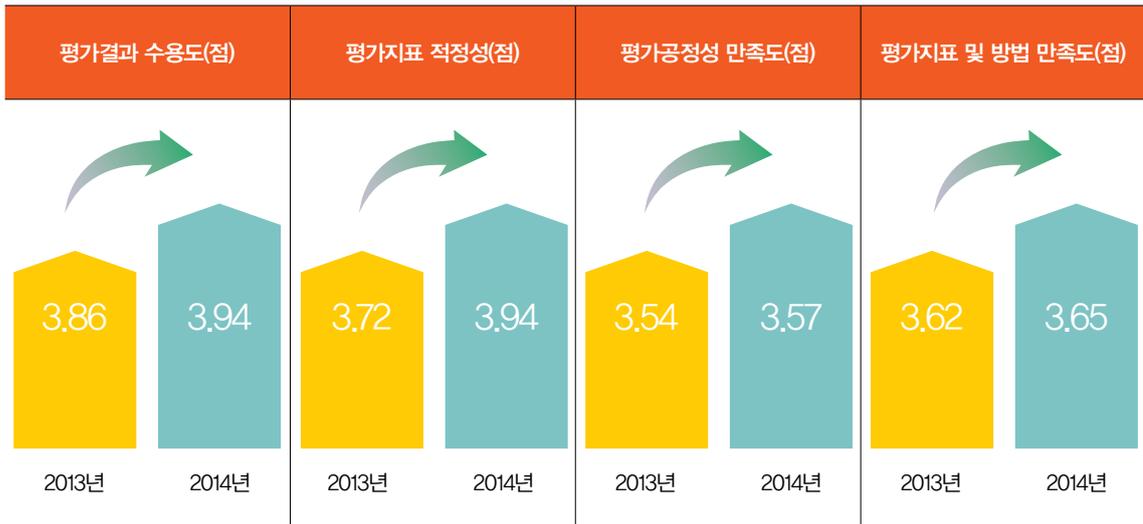
〈성과중심의 차등보상 강화〉

구분	13년	14년	증감
총연봉 차등폭	23.5%	26.1%	11.1%↑
경평 성과급	2.5배	3.1배	24.0%↑
직무급 비중	3.1%	3.3%	6.5%↑

이러한 핵심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운영 및 성과주의 보상 시스템 운영으로 부서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수용도 및 평가지표 적정성이 상승하였으며, 평가공정성, 평가지표 및 방법 만족도 등 개인평가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부서평가〉

〈개인평가〉



가치공유를 통한 열린 조직문화 구축

2014년은 중진공 고유의 조직문화 정립의 기반을 다진 해였다. 중진공인상(像) 정립, 핵심가치 행동강령 제정, 리더십·팔로워십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유의 가치체계를 보완하고 SBCian 브랜드를 활용한 인재상을 개발하였다.

〈 2014년 새롭게 정립한 중진공 고유의 조직문화 가치체계 〉

핵심가치 행동강령	전문성(Work-Specialty)	목표의식, 열정, 혁신
	청렴(Integrity)	사명, 윤리의식, 공정
	고객지향(Toward Customer)	책임, 존중, 헌신
	일체감(Harmony)	공동체, 신뢰, 협력
구성원 실천모델	연(連) : 하나되는 직원	비전공유, 공동체의식, 동료애
	리(理) : 다스리는 직원	부하육성, 책임감, 정서관리
	지(知) : 역량있는 직원	전문성, 글로벌마인드, 주인의식
인재상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원 간 소통의 장인 공감타임, 동기회 워크숍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칭찬 마일리지 및 힐링프로그램 등 총 17개의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본사 이전과 정착을 위하여 ‘중진공 진주 시대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회의 문화 개선, 출·퇴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지역 친화 동호회 및 특별활동 운영 등 13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아울러 CEO와 3급 이하 직원 간 의사소통의 장인 공감보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방안, 조직문화, 사업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의하였다. 그 결과 직접대출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등 40건의 과제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간 노력의 결과로 2014년도 조직문화지수 목표를 초과달성(3.96점)하고, “2014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을 통해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사적 혁신분위기 조성 및 업무혁신 추진

중진공 주요 업무의 Work Smart(창의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SBC 혁신추진단 및 부서별 혁신프론티어를 구성하는 등 업무혁신 추진기반을 구축하였다.

업무진단·분석을 통해 자금심사, 대출·사후관리, 건강진단, 수출마케팅 등 지역본·지부 4개 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금융거래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등 총 29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혁신성과 공유를 위하여 SBC 3.0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9개 과제 중 '정책자금 Paperless 시스템 구축' 등 10개 우수 과제를 선정하였다. 정책자금 활용 시 고객이 다양한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Paperless 시스템은 고객 편의제고와 더불어 신속한 업무처리,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정부의 숨은 규제 개혁 기조에 발맞추어, 중진공도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TF에도 참여하여 정책자금 지원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는데 동참하였다.

아울러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숨은 규제 발굴·개선 TF'를 구성하여 추진한 결과 청년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감정평가법인 협약기준 완화 등 총 10건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일조하였다.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4 Annual Report

03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03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2015년 사업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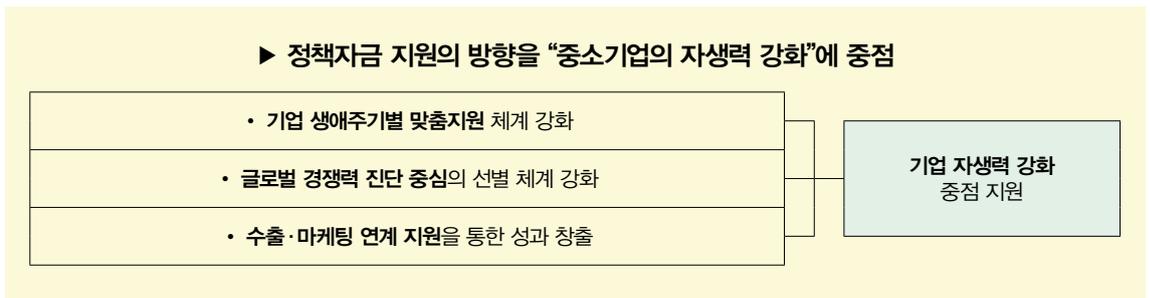
2015년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자, 정부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5년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강화」와 「글로벌화」를 기관의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①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② One-Stop 수출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강화, ③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의 플랫폼 구축, ④ 중소기업 컨설팅 역량강화 및 컨설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요사업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이 많이 배출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꿈이 성공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 정책자금 융자

2015년 정책자금 융자규모는 전년대비(3조50억원) 소폭 증가한 3조 260억원으로, 기업진단과 연계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직접·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5년 정책자금 지원 방향을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진단 중심의 선별체계 강화’ ‘수출·마케팅 연계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조 〉



'15년에는 정책자금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균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에따라, 창업기 단계에서는 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수준(1.3조원)으로 유지하되, 투·융자 복합(메자닌) 금융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은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기 단계에서는, 신성장기반자금(1조 270억원) 확대,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2,000억원), 고성장기업전용자금(2,8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도약 단계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재도약지원자금(1,990억원) 신설하여 기업 순환주기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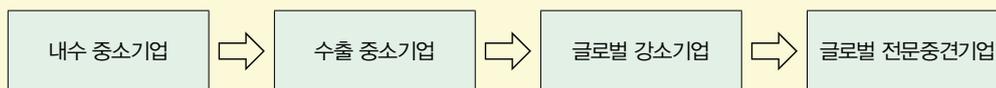
또한, 시장실패 영역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우량기업, 한계기업군에 대한 융자제한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대상의 선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글로벌(마케팅) 경쟁력 중심으로 기업진단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융자이후 수출·마케팅 성과창출을 위한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글로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15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은 수출단계 및 시장별 맞춤형 지원과 수출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원기업의 수출 100억불 달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수출단계 및 목표시장별 맞춤형 지원과 수출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 지원기업 수출 100억불 달성 기반조성 [(15) 60 → (16) 80 → (17) 100억불]

〈 글로벌기업 진화 프로그램 체계 〉



* 글로벌 역량진단 → 온·오프라인 맞춤형 수출서비스 →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선정된 내수기업에 맞춤형 수출 지원서비스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제품을 국내·외 정책매장에 시범판매 한 후, 소비자 반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베드(Testbed)를 확대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품을 현지화(localization)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판매실적 및 현지 소비자 평가 등 시장정보를 종합하여 '수출 스타상품'을 발굴(100여개)하고 다양한 톨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 (기존) 국내 14개, 해외 8개 정책매장 → (확대) 국내·외 테스트베드 50개 운영

** 우수상품발굴(지역본·지부) → 해외판매 → 상품개선 → 수출 스타상품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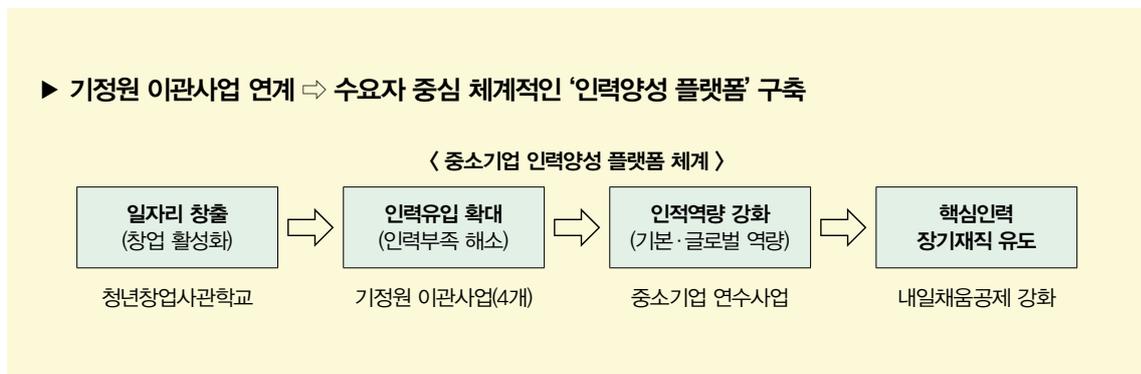
온라인 수출지원은 온라인 수출지원 채널(고비즈코리아,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채널(해외전시·판매장)을 상호 연계 강화하여, 원스톱 수출 창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신규 수출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FTA 체결로 관심이 고조된 중국 내수시장의 중소기업 진출을 위하여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생산·판매 지원까지, 중국 진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발굴 및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3) 인력양성사업

'15년 인력양성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으로 이관이 확정된 한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인력양성 사업을 중진공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를 대상으로 고객·시장 중심의 제품개발 강화 및 패키지형 정책금융* 연계



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지정원 이관 사업** 연계·융합을 통해 중소기업 잠재인력 양성과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창업자에 '보조금 → 용자 → 투자금 패키지' 지원 (5억원 이내)

** 특성화고인력양성, 기술사관육성, 중소기업계약학과,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 등 4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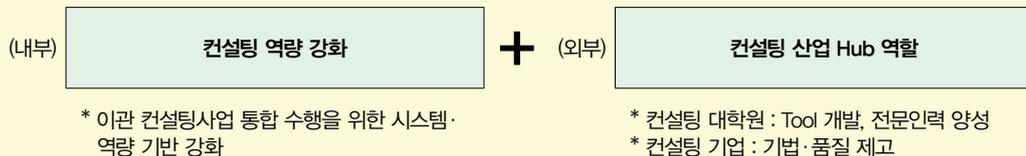
또한, 뿌리기술, 마케팅 전략 등 연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기본역량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4)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기술지원은 지정원의 컨설팅 사업을 이관·통합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컨설팅 역량 등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지정원 컨설팅사업 이관·통합 ⇨ (내부) 컨설팅 역량 등 기반 강화, (외부) 중소기업 컨설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Hub 역할 수행

〈 중소기업 컨설팅산업 생태계 구축 선도 역할 〉



컨설팅 수행 기반 강화를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컨설팅 수행 관련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창업기업 성공률 제고**와 고성장 기업 지속성장을 위하여, 진단기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 사업시스템 운영 → (확대) 컨설팅 기법, 타기관 컨설팅 사업 등 정보공유

** 창업컨설팅 지원 2년 후 창업 생존율(77.6%) > 제조업 창업 평균 생존율(49.5%)

또한, 컨설팅 산업 허브역할 수행을 강화하여, 컨설팅 대학원, 컨설팅 전문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할 계획이다.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4 Annual Report

04

부록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2014년 발간 간행물
2014년 주요 행사
조직도
운영위원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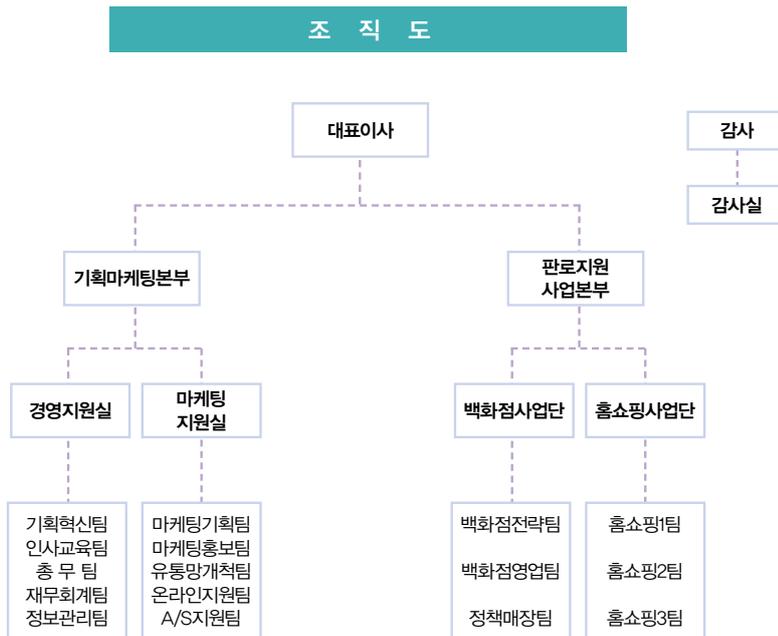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4층 전체매장(3,802㎡)을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인「HIT500 PLAZA」로 확장 오픈하여 창업벤처제품, 지역특화제품, HIT500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확대 설치하여 인천공항 면세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및 삼송점 매장을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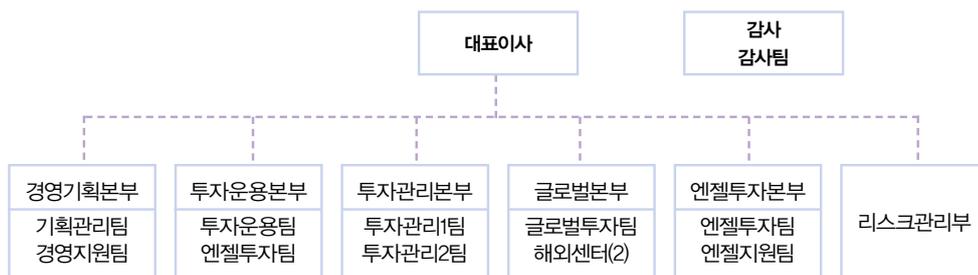
에 추가하는 등 총 13개소 외부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TV홈쇼핑사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공급하고 2012년에는 중소기업전용홈쇼핑(홈앤쇼핑) 설립시 지분을 15% 출자하였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제품·농산물 판로확대, 창의·혁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해 공영홈쇼핑 설립을 계획하고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브랜드 지원,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공동A/S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주)

조직: 5본부 1부 (2해외사무소)



한국벤처투자(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舊 다산벤처)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14년 말 현재 1조 8,341억원이 조성되어, 2조 6,526억원(351개 조합)을 출자약정하여, 10조 7,428억원의 자조합(한국벤처투자 조합 등)을 결성하였다.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주)는 해외 벤처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설립(‘14.6월)하였으며, 내외 벤처투자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외 LP(Limited Partner) 및 GP(General Partner)를 대상으로 International Value Workshop 및 ‘Start-up Korea 2014’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투자자와 제작사간 네트워킹 및 모태펀드 성과 홍보를 위해 ‘2014 한국모태펀드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VC/PE Monthly(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를 발간하여 관련 벤처캐피탈산업을 지원하였다.

SBC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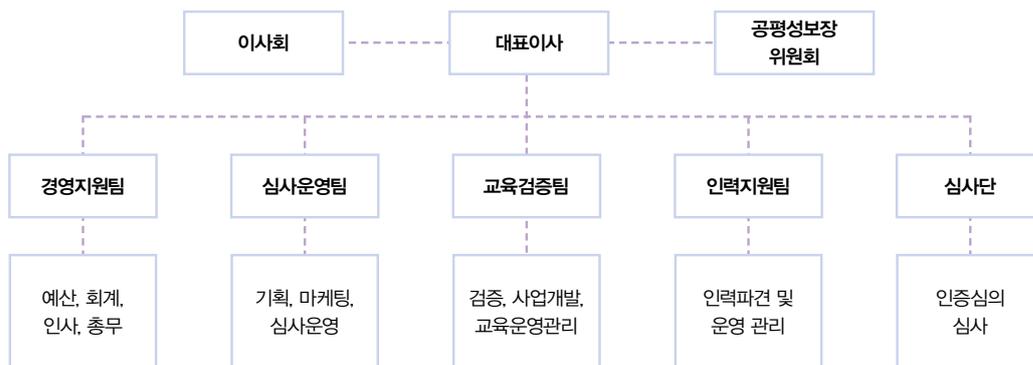
SBC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ISO 9000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 1996년 1월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TL 9000(정보통신분야품질경영시스템), K-OHSM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12년부터 인증원의 수익성 개선과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인력파견 사업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인력파견업을 수행하여 '13년 64명, '14년 79명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다.

사업실적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2	767	4,042	103
2013	790	4,739	130
2014	814	5,156	136



2014년 발간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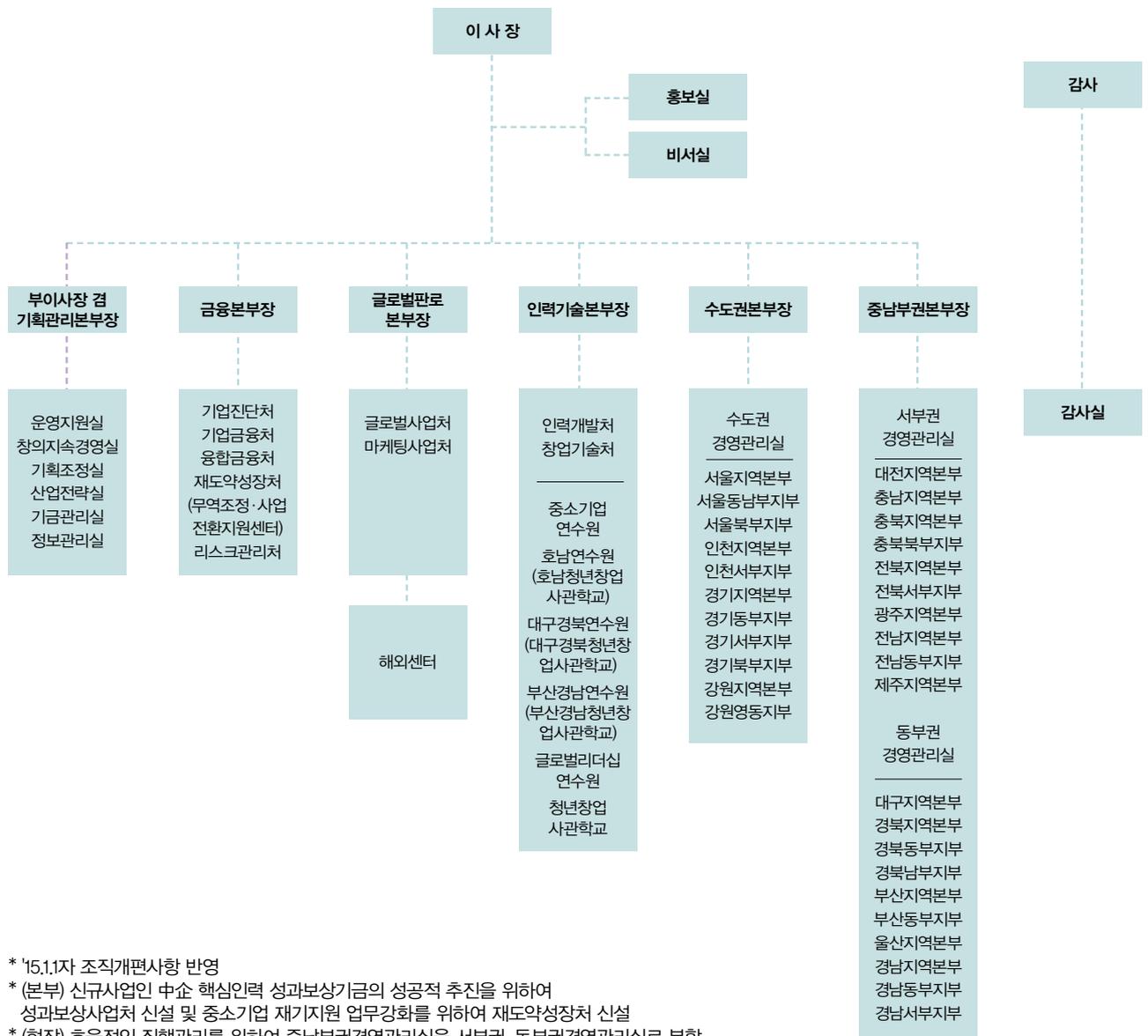
중소기업과 나의 꿈	'14.2
2012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돈버는공장 돈새는 공장	'14.3
인재가 미래다	'14.3
2014년 중소기업지원제도	'14.4
꿈, 꽃 피우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 스토리	'14.4
2013년 연차보고서	'14.5
수출의 한수- SBC 글로벌마케팅	'14.9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기업 (2014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성공사례집)	'14.9
2014 정책자금 성공사례- 중소기업 성공파트너	'14.11
2013 제1회 중소기업 재도전 수기 공모전 당선작품집	'14.11
중소기업 경영위기 진단과 대응	'14.11
2014년 중소기업 체험리포트 및 논문공모전 입상작 모음집	'14.12
수출 그린라이트를 켜줘 (수출 우수중소중견기업 성공사례집)	'14.12
청춘이 된다, 청년이 크다	'14.12
중소기업 해외협력네트워크	'14.12
중소기업진흥공단-신한은행 사회공헌 협력사업 성공사례집	'14.12

2014년 주요행사

1월	2일 8일 21일 29일	2014년 시무식 2014년 업무보고 이사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제35주년 창립기념행사
2월	6일 14일 28일	공공기관 정상화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2014년 제1차 운영위원회 청년창업사관학교 제3기 졸업식
3월	3일 21일 26일	임원 및 부서장 핵심과제 협약식 산업기술 네트워크 포럼 창립총회 제주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개소식
4월	18일 23일 25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OU 체결 중소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발대식 기관경영평가 현장실사
5월	2일 14일 15일 28일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면담 한일정례회의 동아시아라운드 테이블 회의 재도전지원센터 개소식
6월	13일 18일 27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제4기 입교식 울산지역 중소기업 간담회 2014년 상반기 정년퇴임식
7월	1일 21일 22일	코넥스 시장 개장 1주년 기념식 본사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 완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 출범식
8월	12일 18일 21일 28일	무역투자진흥회의 2014년 을지연습 내일채움공제 출범식 진주 본사사옥 개청식
9월	1일 4일 15일 23일	벤처기업협회 MOU 체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소·중견기업인 초청 간담회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활성화 MOU 체결
10월	10일 16일 20일	2014년 국정감사 수감 태백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개소식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11월	25일 27일 28일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 추진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 중소기업 재도전 컨퍼런스
12월	3일 10일 24일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MOU 체결 성과보상기금 운영위원회 중진공 사회공헌 성금 전달 송년 다과회

조직도

□ 12실, 10처, 31지역본·지부, 5연수원, 1청년창업사관학교, 1센터



* '15.11.자 조직개편사항 반영

* (분부) 신규사업인 中企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성과보상사업처 신설 및 중소기업 재기지원 업무강화를 위하여 재도약성장처 신설

* (현장)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남부권경영관리실을 서부권, 동부권경영관리실로 분할

운영위원 및 임원

□ 운영위원

(2015년 1월말 기준)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송대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문위원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이윤재	송실대	교수
	한종관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손광희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구연찬	장암칼스(주)	회장

□ 임원

(2015년 1월말 기준)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을 대표하고, 중진공의 업무 총괄	임채운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이영애
부이사장 겸 기획관리본부장	이사장 보좌, 기획 및 관리 업무 총괄 경영지원, 기획조정, 정책조사, 고객만족 등과 관련된 업무	장덕복
금융본부장	진단, 융자,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심현석
글로벌판로본부장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김석기
인력기술본부장	연수, 성과보상기금,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김인성
수도권본부장	수도권 지역본·지부 및 중소기업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업무 담당	이상철
중남부권본부장	중남부권 지역본·지부 및 지방연수원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업무 담당	임득문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오석송
비상임이사	"	이상철
비상임이사	"	곽봉호
비상임이사	"	임승수
비상임이사	"	김동만
비상임이사	"	한무경
비상임이사	"	허미연
비상임이사	"	이춘우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5년 5월

기획 및 편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전략실

발행인 임채운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